2022 경제전망

2022 Economic Outlook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경제전망

2022 경제전망

총 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 성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 오현희 · 박선우 · 이진희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 | 정은희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2022 경제전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경제전망

2022. 5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5.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지난해 국내경제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역성장과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반도체·자동차·철강 부문 등의 수출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성장률 및 교역량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국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수급 불균형, 운임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중국의 봉쇄위주 고강도 방역 조치 고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2% 중후반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서비스 소비가 정상화되며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교역량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년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 중국의 성장률 둔화 속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여부 등에 따라 대외수요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향후 경기 안정화 정책은 물가안정과 코로나19 불확실성 최소화를 통한 국내수요 여건 활성화,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금융안정 도모 등이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님들의 국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NABO 2022 경제전망〉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	4.0	2.6
민간소비	-5.0	3.6	3.4
건설투자	-0.4	-1.5	0.5
설비투자	7.1	8.3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0	4.1
총수출	-1.8	9.9	4.4
총수입	-3.3	8.5	5.4
경상수지(억달러)	759	883	550
상품수출(통관)	-5.5	25.7	6.8
상품수입(통관)	-7.1	31.5	9.8
GDP디플레이터	1.3	2.3	2.2
소비자물가	0.5	2.5	4.0
취업자수 증감(만명)	-21.8	36.9	45.0
실업률	4.0	3.7	3.5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80	1,144	1,210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1.0	1.4	3.0
명목 국내총생산(GDP)	0.4	6.4	4.8

주: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환율과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요 약

I. 대내외 경제여건

❑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 및 교역량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2022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지역과 중국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IMF, 4월 전망 기준, %): ('21년)6.1→('22년)3.6
- 유로지역(IMF, 4월 전망 기준, %): ('21년)5.3→('22년)2.8
- 신흥개도국(IMF, 4월 전망 기준, %): ('21년)6.8→('22년)3.8

○ 세계교역은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상품교역은 공급차질 및 물류지연의 점진적 완화와 견실한 재화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서비스교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여행 및 인적 교류가 점차 정상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세계교역량증가율(IMF, 4월 전망 기준, %): ('21년)10.1→('22년)5.0

❑ 2022년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 빠르게 전환되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민간의 소비와 투자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 등 신흥개도국 성장 둔화와 금융 불안 위험 확대

○ 신흥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률 둔화와 금리 인상,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성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증가

- 미국 및 EU의 대러 경제제재 강화로 관련국 경기침체 유발 및 곡물, 에너지 등의 글로벌 공급망 제약이 심화될 가능성

❑ 최근 국내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

○ 2022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며 전기대비 0.7% 성장하여 지난해 4/4분기(1.2%)보다 하락

- 민간소비는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공급망 차질, 건설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진
- 한편 동기간 월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9% 증가해 지난해 4/4분기(6.4% 증가)보다 둔화되었으며, 건설기성액(-2.6%)과 설비투자지수(-1.6%)는 모두 감소

○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

- 수출(통관 기준)은 3월 중 월간 수출액(635억 달러)과 일평균수출액(27.6억 달러)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를 보임
-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수출호조, 서비스업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22년 1/4분기 전년대비 100.1만명 증가)

○ 최근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등 전방위 물가상승압력이 확대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2월)3.7→(3월)4.1→(4월)4.8
- 생산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1월)8.9→(2월)8.5→(3월)8.8
- 수입물가지수(전년대비, %): ('22.1월)30.5→(2월)30.7→(3월)35.5

II. 2022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 2022년 국내경제는 2.6% 성장 전망

○ 국내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강화될 전망

-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 기조,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 건설투자는 장기간 부진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 전환할 전망
- 설비투자는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자본재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총수출(물량)은 재화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총수입(물량)은 수출용 중간재와 원유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2022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내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미미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소비(민간+정부)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내수성장기여도(%p): ('21년) 3.1→('22년 전망) 2.8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지난해 0.8%p에서 1.0%p 내외 하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순수출성장기여도(%p): ('21년) 0.8→('22년 전망) -0.2

❑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8% 성장 전망**

○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등으로 지난해(6.4%)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

-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4.8% 전망) = 실질 국내총생산(2.6% 전망)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2.2% 전망)
- GDP디플레이터는 내수 디플레이터가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 순수출 디플레이터는 교역조건 악화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2022년 명목GDP 규모는 전년대비 약 100조원 내외 증가한 2,156조원 수준

- 명목GDP 규모(조원): ('20년)1,933→('21년)2,057→('22년 전망)2,156

❑ **국내 경제성장 경로의 위험 요인**

○ (상방요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공급망 제약 해소, 우크라니아 전쟁 조기 종결

○ (하방요인)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통화긴축 기조 가속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중국경제성장의 가파른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을 들 수 있음

2. 민간소비

❑ **2022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

○ 2022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3.4% 증가할 전망

○ (상방요인)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서비스 소비 및 거주자 국외소비 회복에 더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민간소비의 회복을 뒷받침

- 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서비스 소비가 지난 2년간의 부진으로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하방요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누적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증가, 물가 상승 등 실질 구매력 약화요인들이 소비 여력을 제한할 가능성

3. 건설투자

❑ 2022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

- ○ 2022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5% 증가할 전망
  - – 건물건설은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가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거용을 중심으로 확대
  - – 토목건설은 철강,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정체될 전망
- ○ (상방요인) 주택수주 확대, SOC 예산 증가
- ○ (하방요인)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가

4. 설비투자

❑ 2022년 설비투자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

- ○ 2022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와 대외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둔화되어 0.2% 증가
  - – 설비투자(전년대비, %): ('20년)7.1→ ('21년)8.3→ ('22년 전망)0.2
- ○ (상방요인) 2022년 설비투자는 IT부문 차세대 기술 도입과 비IT부문 친환경 장비 전환에 따른 신규 투자 확대
- ○ (하방요인)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전년도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 대비 둔화될 전망

5. 지식재생산물투자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수요 증가로 연간 4.1% 증가
  - – 연구개발투자 부문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증가 예상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은 신기술 연구개발 수요 증가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 정부부문은 R&D 예산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

6. 대외거래

❑ 2022년 수출(통관)은 양호한 증가세 예상

○ 2022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6.8% 증가할 전망

- 수출(전년대비, %): ('20년)-5.5→ ('21년)25.8→ ('22년 전망)6.8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0년)18.8→ ('21년)23.7→ ('22년 전망)25.1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제품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상방요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세계교역량 확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 (하방요인) 신흥국 경제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성장률 둔화, 글로벌 공급망 제약 장기화 등

○ 2022년 무역수지는 지난해(293억 달러)보다 축소된 127.6억 달러 전망

-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

❑ 2022년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2022년 경상수지는 지난해(883억 달러)보다 축소된 550억 달러 전망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적자 전환될 전망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2021년 4.9% 수준에서 2022년 3.2%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7. 고용

❑ 2022년 중 고용은 전년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 2022년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5만 명 증가할 전망
  - – 서비스업에서는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지속
  - – 제조업에서는 장기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로 전환될 전망
  - – 건설업에서는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전년의 증가세가 유지
- ○ 실업률은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 실업률은 3.5%로 전년(3.7%)에 비해 0.2%p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여 63.4%를 기록
  - – 고용률은 견실한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7%p 상승한 61.2%로 개선

8. 소비자물가

❑ 2022년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이어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1.4%)을 크게 상회하는 연간 4.0%를 기록할 전망
  - –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의 상승 지속,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폭 확대 등에 따라 높은 오름세 지속
  - – 서비스물가는 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서비스업 부문 임금 상승 등으로 상승
- ○ (상방요인) 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의 가파른 수요증가
- ○ (하방요인) 유류세 인하정책, 정책금리 인상폭 확대 등
  - –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폭이 제한될 수 있음
  - – 하반기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상존

9. 금리

❑ 2022년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 국고채금리(3년만기 기준)는 2021년 1.4%에서 2022년 3.0%로 상승할 전망

- 국고채 금리(3년물, %): ('20년)1.0→('21년)1.4→('22년 전망)3.0

○ (상방요인) 대내외 통화긴축 본격화, 소비자물가 상승 등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통화정책 변화가 금리의 주요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하방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후 불확실성 해소 등

10. 환율

❑ 2022년 중 원/달러환율은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

○ 원/달러환율은 2021년 연평균 1,145원에서 2022년 1,210원으로 상승 예상

- 원달러환율(원/달러): ('20년)1,180→('21년)1,145→('22년 전망)1,210

○ (상방요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

- 미 연준의 긴축강화 기조 강화로 시장금리 상승으로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강세 지속

○ (하방요인) 대내적으로는 원활한 달러 공급, 대외적으로는 달러강세 기조 약화

- 무역수지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 역대 최고 수준의 외화예금 규모 등은 외환시장 내 원활한 달러 공급 요인
- 하반기 중 ECB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 등으로 달러강세가 제한될 가능성

차 례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 1

1. 세계 경제여건 ····· 3
가.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 ····· 3
나. 2022년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 ····· 7
다. 국제유가 ····· 15
2. 국내 경제 여건 ····· 19
가. 경제성장률 추이 ····· 19
나. 경기 국면 진단 ····· 19
다. 내수와 수출 여건 ····· 20
라. 고용과 물가 여건 ····· 22

Ⅱ. 2022 경제전망 / 25

1. 경제성장률 ····· 27
2. 민간소비 ····· 31
3. 건설투자 ····· 37
4. 설비투자 ····· 41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5
6. 대외거래 ····· 51
7. 고용 ····· 57
8. 소비자물가 ····· 61
9. 금리 ····· 67
10. 환율 ····· 70

III. **주요국 동향 및 전망** / 75

1. 미국 ····77
   가. 최근 경제동향 ····77
   나. 미국 경제전망 ····79
2. 중국 ····82
   가. 최근 경제동향 ····82
   나. 중국 경제전망 ····84
3. 유로지역 ····87
   가. 최근 경제동향 ····87
   나. 유로지역 경제전망 ····89
4. 일본 ····90
   가. 최근 경제동향 ····90
   나. 일본 경제전망 ····92

부록 / 95

1. NABO 경제전망 개요 ····97
2. 전망 방법론 개요 ····98

표 차례

[표 1] 2022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5
[표 2] 2022년 국내 경제 전망 ····· 28
[표 3] 2021년 건설투자 주요 지표 ····· 38
[표 4] 설비투자 ····· 42
[표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5
[표 6] 소비자물가 ····· 62
[표 7]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가격 전망 ····· 64
[표 8]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78
[표 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82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87
[표 1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91

그림 차례

[그림 1] 세계 경제활동지표 추이 ·····3
[그림 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4
[그림 3]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저소득국가의 백신접종률 추이 및 전망 ·····6
[그림 4]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 추이 ·····6
[그림 5] 세계교역량 추이 및 전망 ·····7
[그림 6]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월별 추이 ·····8
[그림 7]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8
[그림 8]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9
[그림 9] 신흥개도국의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9
[그림 10] 신흥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갭 추이 ·····10
[그림 11] 선진국의 국가부채/GDP 비율 추이 ·····11
[그림 12] 신흥개도국의 국가부채/GDP 비율 추이 ·····11
[그림 1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자재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13
[그림 14]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14
[그림 15] 국제유가 추이 ·····15
[그림 16] EIA의 국제유가 전망 ·····16
[그림 17] 전세계 원유 수급 추이 및 전망 ·····16
[그림 18] 상업용 항공기 운항횟수 추이 ·····17
[그림 19] OPEC 생산량과 생산능력 추이 ·····17
[그림 20] 미 원유생산과 WTI 가격 추이 및 전망 ·····18
[그림 21] 미국 미가동 유정 및 시추기 수 추이 ·····18
[그림 22] 이란, 베네수엘라, 리바아 생산량 ·····18
[그림 23] WTI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과 WTI 가격 추이 ·····18
[그림 24] 실질GDP 성장률 추이 ·····19
[그림 25] 경기 순환변동치 추이 ·····20

[그림 26]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 20
[그림 27] 소매판매액 추이 ····· 21
[그림 28] 고정투자 추이 ····· 21
[그림 29] 수출과 수입 증가율 추이 ····· 22
[그림 30] 일평균수출액 추이 ····· 22
[그림 31] 취업자수 증감과 고용률 추이 ····· 22
[그림 32]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 22
[그림 33]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 23
[그림 34]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 23
[그림 35]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 29
[그림 36] 명목GDP 성장률 전망 ····· 30
[그림 37] 국제유가와 교역조건 추이 ····· 30
[그림 38] 민간소비 추이 ····· 31
[그림 39] 민간소비 전망 ····· 32
[그림 40]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33
[그림 41] 코로나19 이후 재화 형태별 민간소비 추이 ····· 33
[그림 42] 국내 출입국자 수 추이 ····· 33
[그림 43] 거주자 해외소비 추이 ····· 33
[그림 44] 가계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 ····· 34
[그림 45]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 ····· 34
[그림 46] 건설투자 추이 ····· 37
[그림 47] 건설투자 전망 ····· 38
[그림 48]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 39
[그림 49] 한국은행 기준금리 ····· 39
[그림 50] 주택 준공 및 착공 실적 ····· 40
[그림 51] 소상공인 BSI 추이 ····· 40
[그림 52] SOC 예산 및 토목건설 ····· 40
[그림 53] 건설 중간재 공급물가 ····· 40
[그림 54] 제조업 설비투자 BSI ····· 43
[그림 55] 제조업 평균가동률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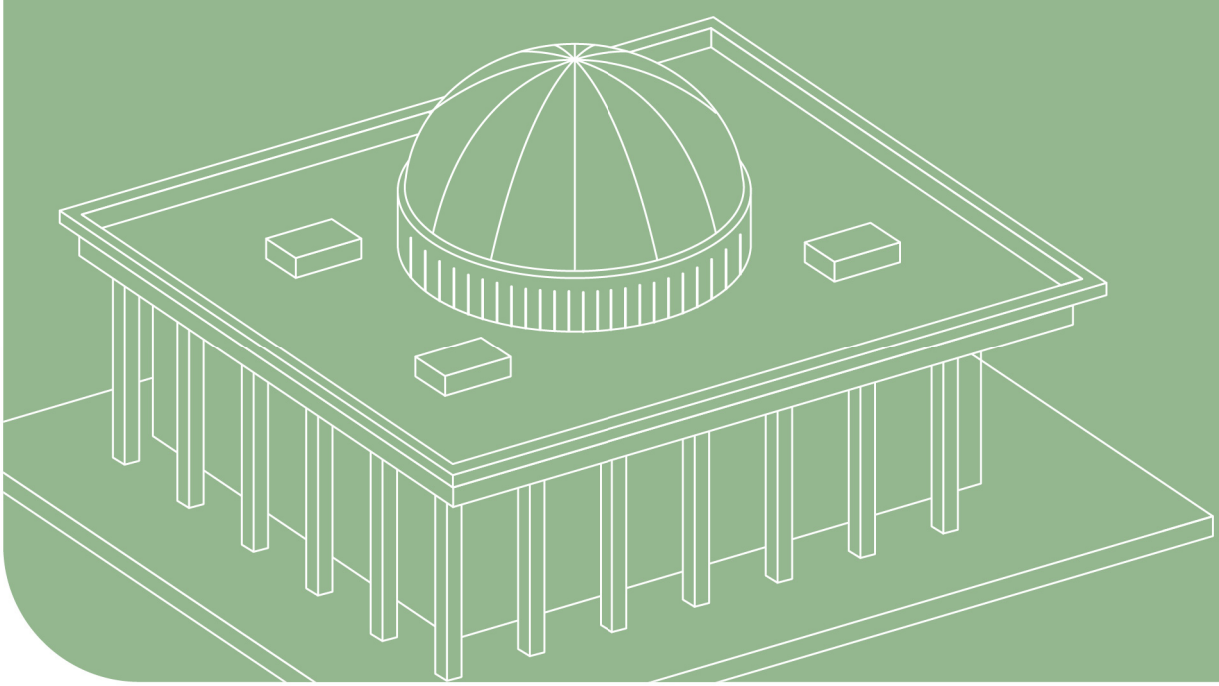
[그림 56] 반도체 수출액 추이 ····43
[그림 57]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43
[그림 58] 세계 철강수요 전망 ····44
[그림 59] 국내 조선 신규 수주량 전망 ····44
[그림 60] 자본재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46
[그림 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46
[그림 62]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6
[그림 63] 기업부설연구소 개관 추이 ····47
[그림 64]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47
[그림 65] 정부의 R&D 예산 규모 및 증가율 추이 ····48
[그림 66] 연간 수출 추이 ····51
[그림 67] 15대 품목 연간 수출 증가율 ····51
[그림 68]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52
[그림 69] 일평균수출액 추이 ····52
[그림 70] 세계경제성장률, 교역신장률 추이와 전망 ····53
[그림 71] 전세계 교역량, 수출량, 수입량 추이 ····53
[그림 72] 수출입 경기확산지수 추이 ····54
[그림 73] 공급망압력지수 추이 ····54
[그림 74] 코로나19 전후 재화와 서비스수출 추이 ····55
[그림 75] 출입국자 증가율 추이 ····55
[그림 76] 월별 고용 증감 추이 ····57
[그림 77]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58
[그림 78]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수 ····59
[그림 7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60
[그림 80]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62
[그림 81]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 ····63
[그림 82] 수입물가지수 추이 ····63
[그림 83] 연간 국고채 금리 추이 ····67
[그림 84]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 추이 ····67
[그림 85] 국고채 및 미국채 금리 추이 ····68

[그림 86] 국고채선물 순매수 추이 ····68
[그림 87] 연간 원/달러 환율 추이 ····68
[그림 88] 월간 원/달러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70
[그림 89] 원/달려 환율 추이 ····71
[그림 90] 원/달러환율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72
[그림 91] 외국인 주식순매수 원/달려 환율 추이 ····72
[그림 92]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72
[그림 93] 미국의 분기별 실질GDP성장률 추이 ····77
[그림 94] 주요 전망기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78
[그림 95] 중국 산업별 성장률 추이 ····82
[그림 96] 중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82
[그림 97] 중국 산업생산 추이 ····83
[그림 98] 중국 소매판매 추이 ····83
[그림 99]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84
[그림 100]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88
[그림 101]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88
[그림 102] 유로지역 PMI 추이 ····88
[그림 10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88
[그림 104] 일본의 지출 부문별 성장률 추이 ····90
[그림 105] 일본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91
[그림 106] 일본 주요 실물 지표 ····91
[그림 107]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92
[그림 108] 주요 기관의 일본 경제 전망 ····92

박스 차례

[BOX 1] 가계부채 누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35
[BOX 2] 주요국의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 ·····49
[BOX 3] 국제유가 상승이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65
[BOX 4] 미연준의 3월 수정경제전망 ·····80
[BOX 5] 2022년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85
[BOX 6] 일본의 경기부양책 ·····93

국회예산정책처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Ⅰ.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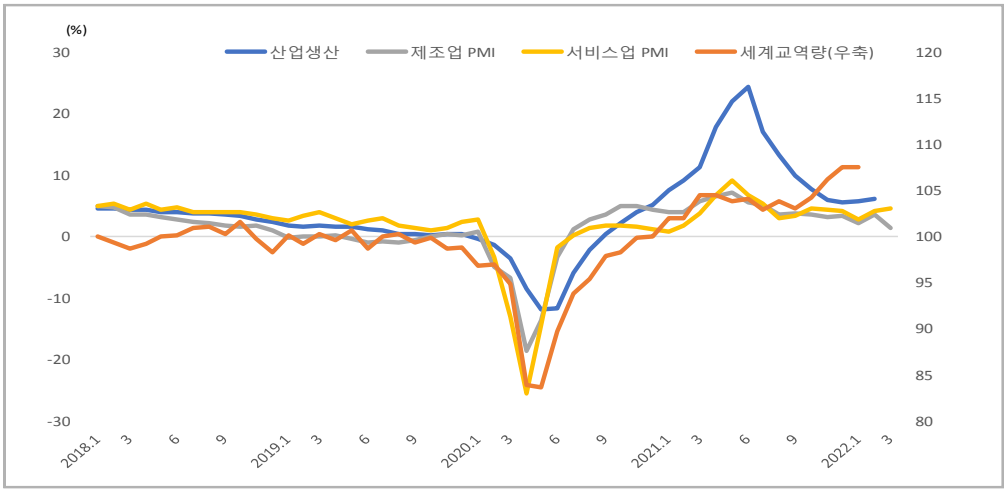
가.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

❑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2021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 강력한 경기부양책, 재화 교역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냄

○ 금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 교역량,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의 주요 실물 경제 활동지표가 둔화되는 모습

| 그림 1 | 세계 경제활동지표 추이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2) PMI는 기준치(50)로부터의 차이로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을 나타냄
3) 세계교역량은 2018=100
자료: CPB, IMF WEO(2022. 4월)

❑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 및 교역량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2021년 세계 경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IMF, 4월 전망 기준)는 2021년 6.1%에서 2022년 3.6%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점차 코로나19 충격 이전 성장 추세로 회귀할 전망

○ 2022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로지역이 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은 성장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될 전망

–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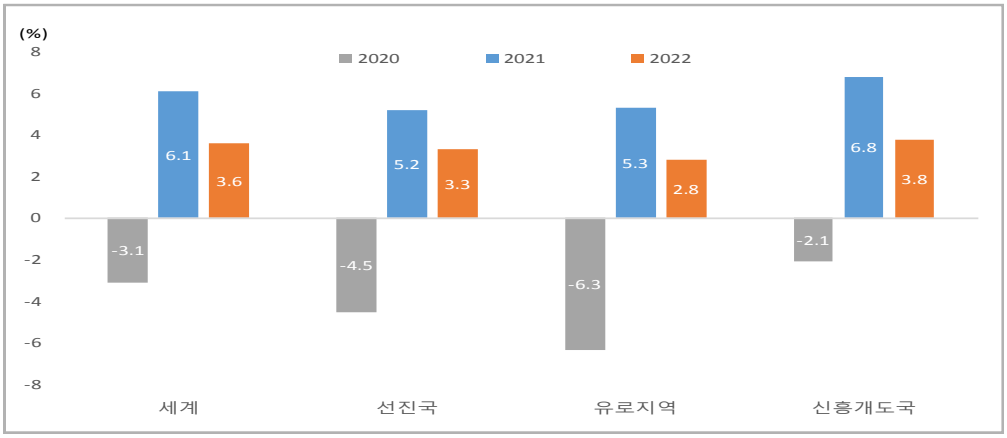
– 유로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지정학적 하방 위험이 점증하는 상황

– 일본 경제는 적극적인 재정부양책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일본정부는 가계현금지급, 중소기업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5.7조엔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발표(2021. 11. 19)

– 중국 경제는 공동부유 목표 추구와 기업규제 강화, 탄소중립 등과 같은 질적 성장 지향 정책과 고강도 방역정책 고수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5% 내외로 둔화될 전망

| 그림 2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 Database(2022. 4월)

| 표 1 | 2022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211)	2022		
		OECD	IMF	세계은행
미국	5.7	3.7	3.7	3.7
유로지역	5.2	4.3	2.8	4.2
독일	2.7	4.1	2.1	-
영국	7.2	4.7	3.7	-
일본	1.6	3.4	2.4	2.9
중국	8.1	5.1	4.4	5.1
러시아	4.5		-8.5	2.4

주: 1) 2021년은 실적치
자료: OECD(2021.12월), IMF(2022.4월), 세계은행(2022.1월) 세계경제 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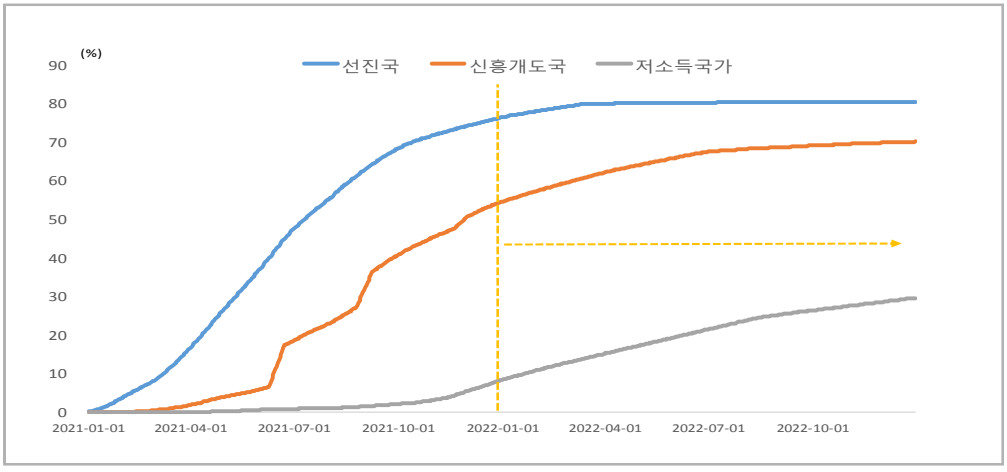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백신보급 확대, 치명률 저하 등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 출현의 가능성 등으로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 상존

–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완화될 전망

– 다만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저소득국가의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미흡 등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백신접종률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기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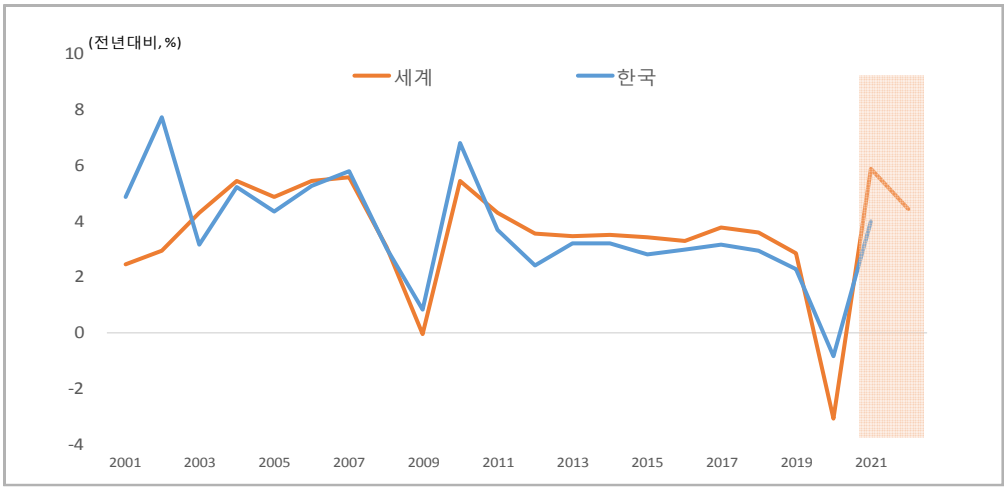
– 선진국의 백신접종률이 80%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신흥개도국과 저소득국가는 2022년 말 70%, 30% 수준에 근접할 전망

| 그림 3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저소득국가의 백신접종률 추이 및 전망



주: 2022년 전망은 2021. 12. 23일까지의 일별 자료를 기초로 14일 이동평균을 적용하여 계산
자료: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Database(2022. 1월)

| 그림 4 |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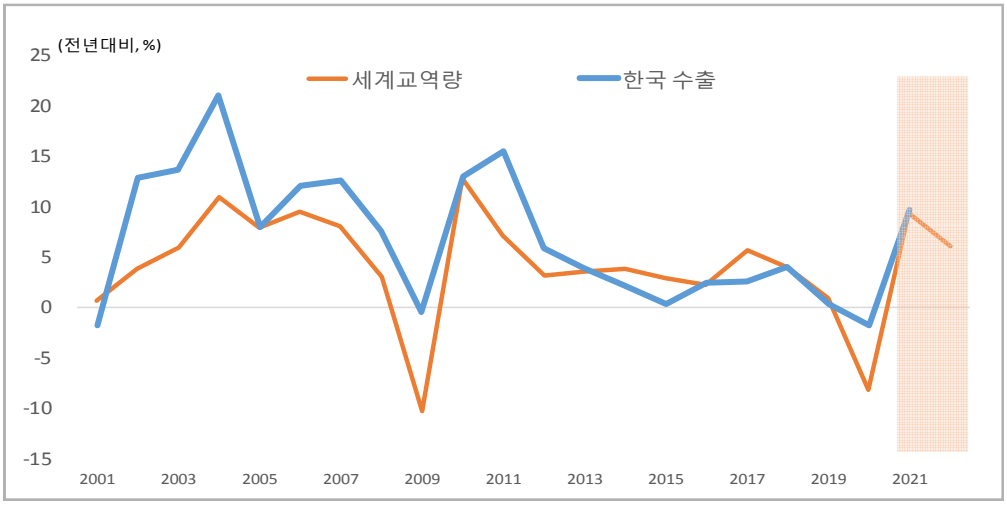


주: 2022년은 IMF의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2. 1월)

❑ 세계교역은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 상품교역은 공급차질 및 물류지연의 점진적 완화와 견실한 글로벌 재화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
- ○ 서비스교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여행 및 인적 교류가 점차 정상화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
- ○ IMF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교역량이 2021년 9.3% 증가한데 이어 2022년 중에는 전년대비 4.9~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림 5 | 세계교역량 추이 및 전망



주: 2022년은 IMF의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2. 1월)

나. 2022년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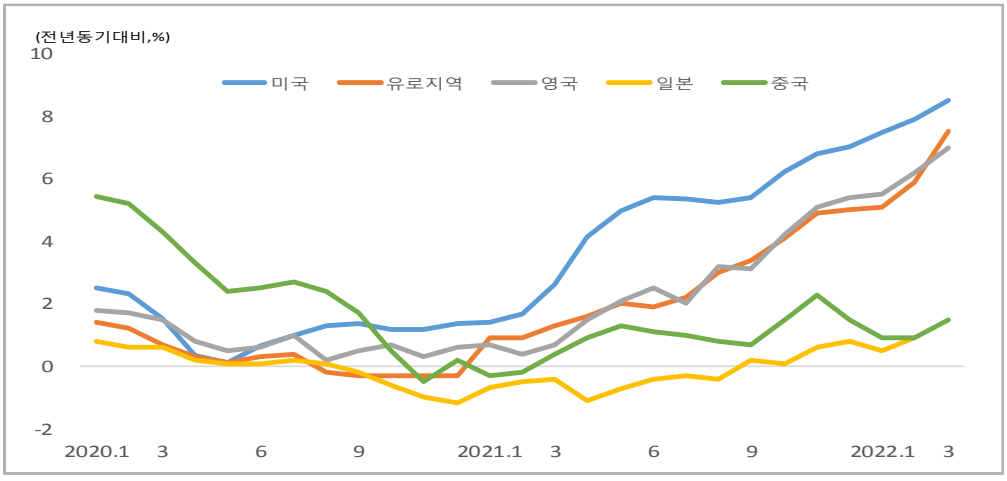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 빠르게 전환되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 운임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 지속

- 미국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7월)5.4→(12월)7.0→('22.3월)8.5
- 유로지역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7월)2.2→(12월)5.0→('22.3월)7.5
- 영국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7월)2.0→(12월)4.8→('22.3월)7.0
- 중국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7월)1.9→(12월)1.5→('22.3월)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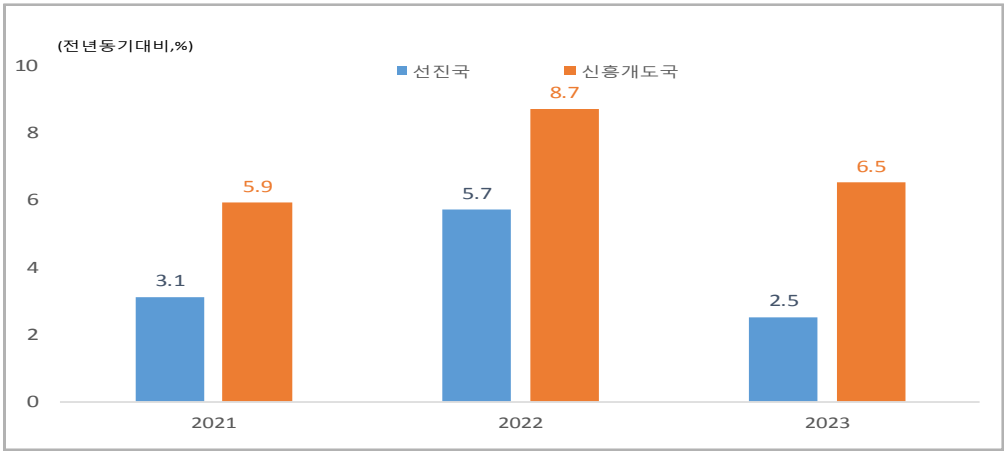
| 그림 6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월별 추이



자료: Bloomberg

○ IMF(2022. 4월 기준)는 2022년 중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전년대비 5.7%, 8.7%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그림 7 |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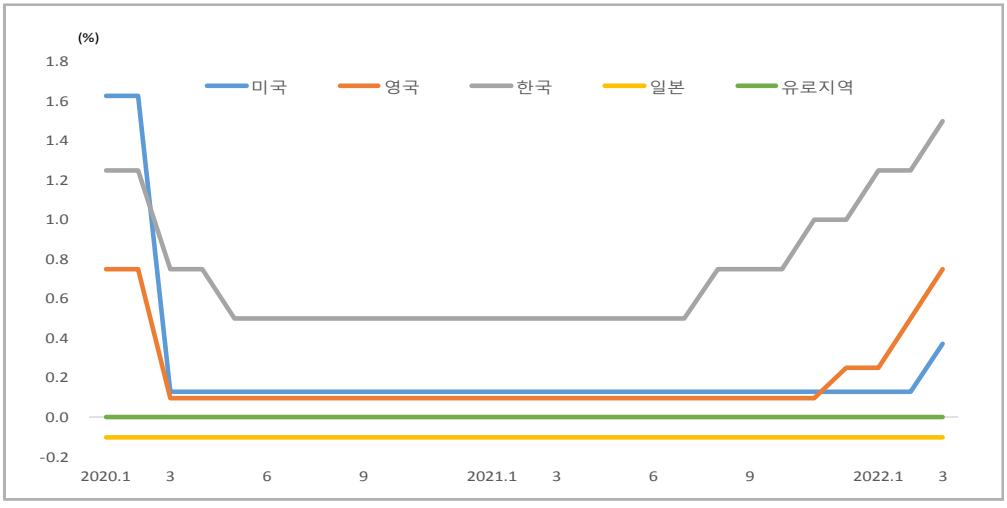


자료: IMF, WEO Database(2022. 4월)

○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로 빠르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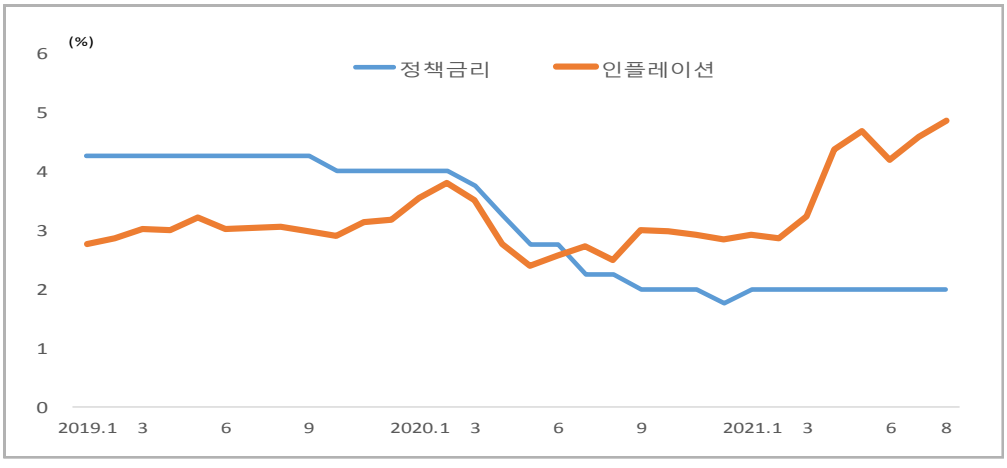
-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한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
- 신흥개도국 정책금리는 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2021년 1/4분기 3% 수준에서 하반기 중 5%대로 급등하여 2021년 중 전년대비 5.7% 상승

| 그림 8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 그림 9 | 신흥개도국의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주: 중앙값(median) 기준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Database(2021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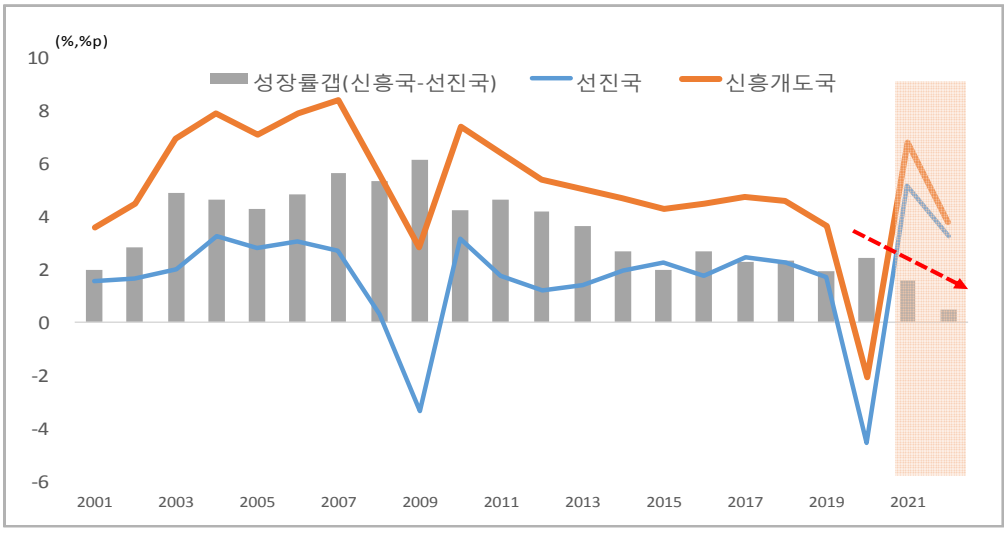
○ 미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단행과 양적 긴축으로의 전환은 국채금리 상승을 통해 세계적인 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개도국 성장 둔화와 금융 불안 위험 확대

○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며 선진국 경제와 신흥개도국 경제의 성장률 갭이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

- 신흥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성장률갭은 2000년대 들어 가장 좁혀질 전망: 2001~2010년 연평균 4.5%p→2011~2018년 연평균 3.1%p→2020년 2.5%p→2021년 1.5%p→2022년 0.9%p)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중 신흥개도국은 3.8%, 선진국 경제는 3.3% 성장하여 성장률갭이 0.5%p로 좁혀질 전망

| 그림 10 | 신흥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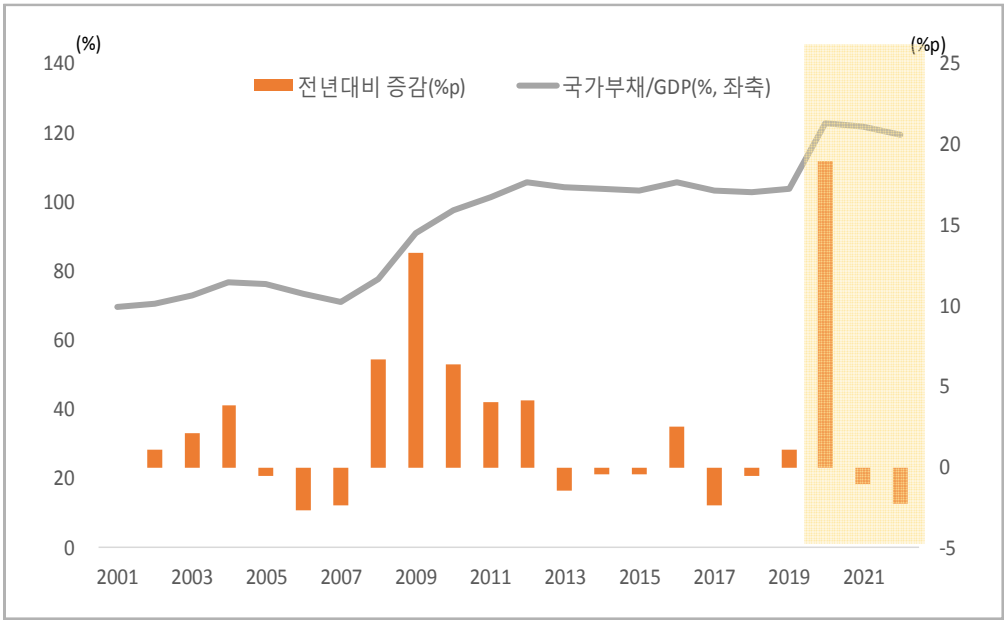


주: 2022년은 전망치
자료: IMF, WEO database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부채/GDP 비율은 선진국은 하락 전환되지만 신흥개도국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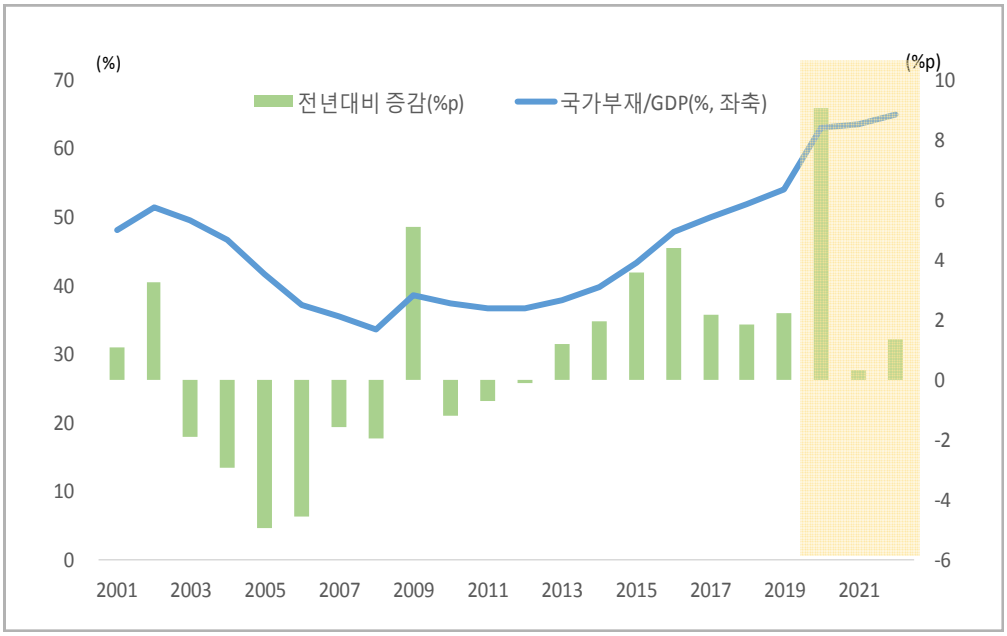
- 선진국의 국가부채/GDP 비율은 2021년 121.6%에서 2022년 119.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흥개도국은 동기간 63.4%에서 64.8%로 상승할 전망

| 그림 11 | 선진국의 국가부채/GDP 비율 추이



주: 2021년과 2022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1. 10월)

| 그림 12 | 신흥개도국의 국가부채/GDP 비율 추이



주: 2021년과 2022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1. 10월)

○ 신흥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에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부채 부담 등으로 성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전망

- 성장률 갭 축소는 금리 및 환율 상승 등을 동반하며 해외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불안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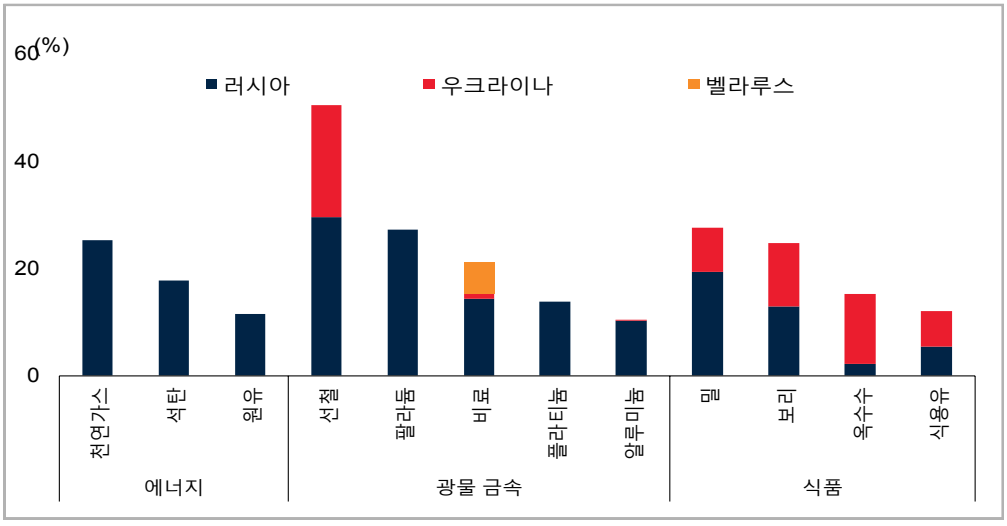
○ 특히 중국 경제는 고강도 방역정책 고수와 미·중 갈등, 기업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021년(8.1%)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2022년 전망: IMF 4.4%, OECD 5.1%, 중국사회과학원 5.3%)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증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격화된 미국 및 EU와 러시아 간의 정치적 미국과 서방의 對러 경제 제재 강화로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교역량 감소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으로 전쟁 장기화와 경제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 제약 및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심화될 가능성
- 對러 수출입제재,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 민간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등의 제재 조치가 더해질수록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 중앙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중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

| 그림 13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자재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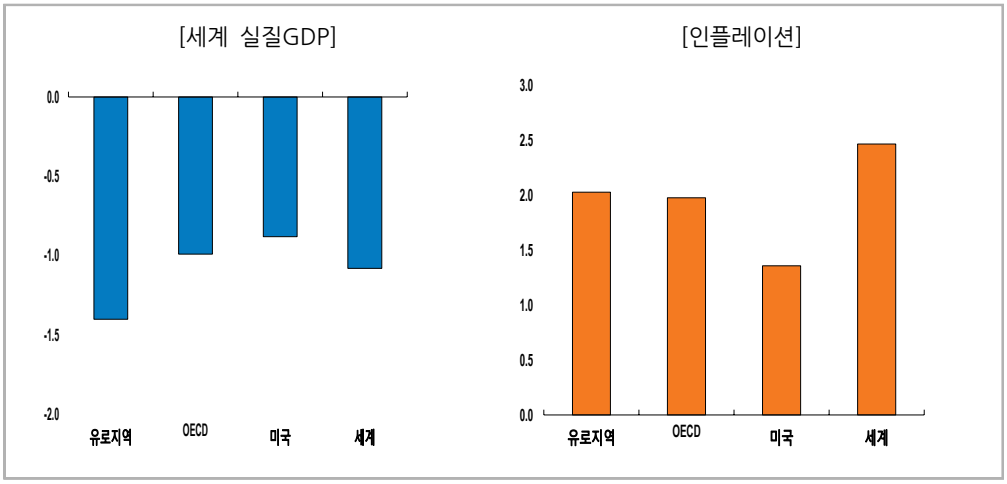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Market Outlook(2022. 4월)

○ OECD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원자재시장에 미칠 충격을 통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1)]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GDP와 교역량에 2% 정도에 불과하고 세계금융시장과의 연계도 크지 않음
- 그러나 두 나라는 세계 원자재시장의 주요 공급자로서 밀(30%), 옥수수·광물질·비료·천연가스(20%), 석유(11%)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첫 2주 동안 세계 원자재 및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이 향후 1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세계 GDP가 1%p 이상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2.5%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

1) OECD Econmic Outlook, Interim Report(2022. 3월),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OECD

| 그림 14 |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주: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형과 가정은 관련 보고서 참조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2.년 3월)

○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액은 99.8억 달러(전체 수출의 1.5%, 12번째 수출국), 수입액은 173.5억 달러(전체 수입의 2.8%, 9번째 수입국)

* 주요 수출품목(억달러): 승용차 25.5, 자동차부품 15.1, 철강제품 6.9, 산업기계 5.7 등
주요 수입품목(억달러): 나프타 43.8, 원유 42.7, 유연탄 22.0, LNG 17.2, 백금 5.9 등

-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네온 가스는 전세계 사용량의 70%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 수입 비중의 23% 차지하여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차질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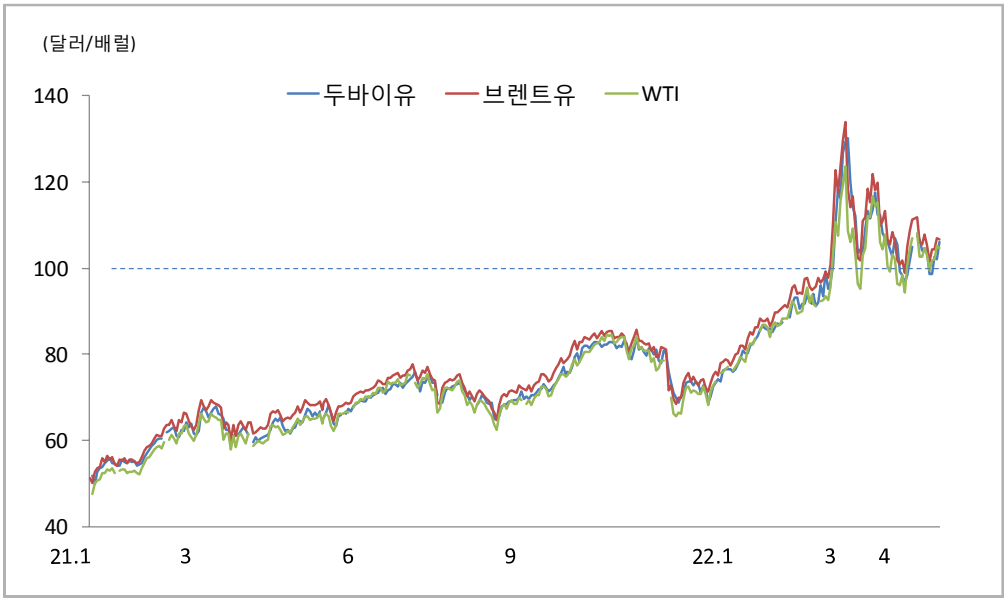
다. 국제유가

❑ 2022년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

○ 2022년 국제유가는 2021년(69.2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전망

- EIA(미 에너지정보청, 3월 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하여 2022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을 각각 배럴당 82.9달러, 79.4달러로 예상
- 주요 투자은행들의 2022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는 각각 배럴당 98.6달러, 97.0달러[2)]
- IMF(4월 전망기준)는 2022년 3개 유종 평균 유가를 전년대비 54.7% 상승한 배럴당 106.8달러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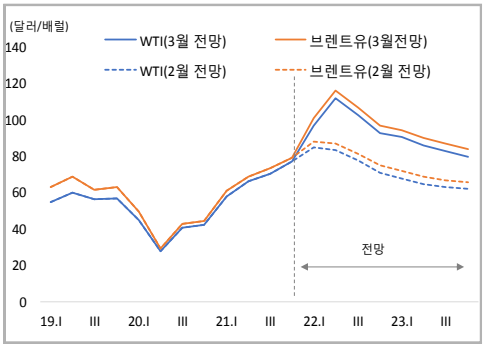
| 그림 15 |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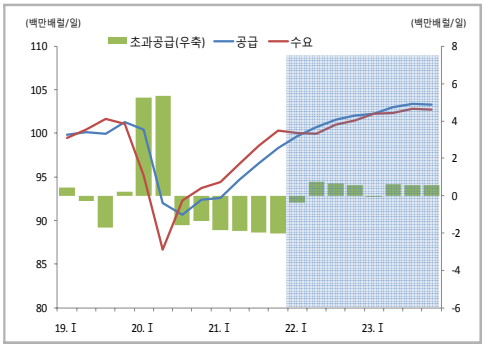
2) 평균값, 2022년 4월 29일 기준

| 그림 16 | EIA의 국제유가 전망



자료: EIA

| 그림 17 | 전세계 원유 수급 추이 및 전망



주: 2022년 1/4분기부터는 전망치
자료: EIA

❑ (상방요인)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

○ 2022년 원유수요는 경제활동 재개로 회복세가 이어지며 3/4분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항공기 운항건수가 회복되면서 운송용 석유수요 증가 예상[3)]

○ 공급측면에서는 산유국들의 생산능력 감소, 셰일업체들의 보수적 운영 등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 산유국들은 2014년부터 지속된 저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폭락, 전세계적 탈탄소 기조 등으로 신규투자를 축소하여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 OPEC의 생산능력은 2012년말 3,761만 배럴에서 2022년 3월말 3,342만 배럴로 축소[4)]
- 셰일업체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파산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정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부채상환 및 배당금지급 요구가 높아진 점, 미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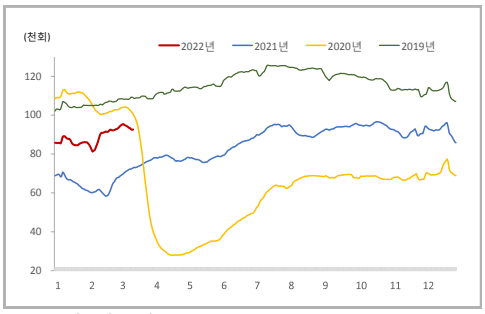
○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조치 등으로 러시아산 원유수출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

3) 전세계 상업용 항공기 운항횟수는 2020년 4월 중 2019년 대비 24.9%까지 하락하였으나, 2022년 3월 85.1% 수준까지 회복

4) OPEC의 2022년 3월 원유생산량은 전월대비 9.0만b/d 증가하여 증산목표 40만b/d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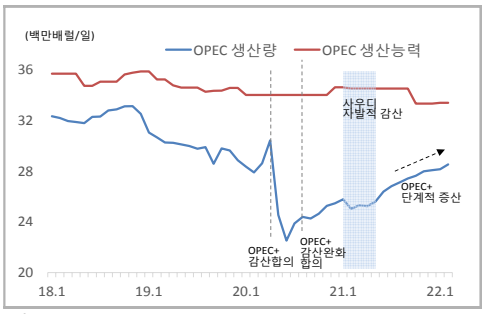
– 러시아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처[5]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대체재인 원유의 수요 증가 및 유가 상승 가능성

| 그림 18 | 상업용 항공기 운항횟수 추이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Flightradar24

| 그림 19 | OPEC 생산량과 생산능력 추이



자료: Bloomberg

❑ (하방요인) 원유공급 증가 및 원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감소

○ OPEC+는 경제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대로 인한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22년 하반기 중 감산을 종료할 예정

– OPEC+는 2021년 8월부터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여 2022년 9~10월 중 기존 감산량을 모두 소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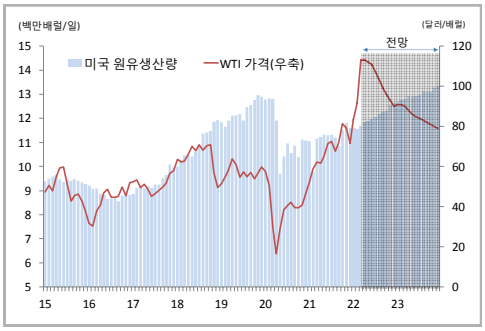
○ 국제유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향상된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 재개로 원유의 공급량 증가 가능성

– 미국의 원유생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산성 악화로 원유 시추기수가 급감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라 점차 생산이 재개

– 미완결 유정을 통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유정 시추가 증가하면서 시추기(rig) 수도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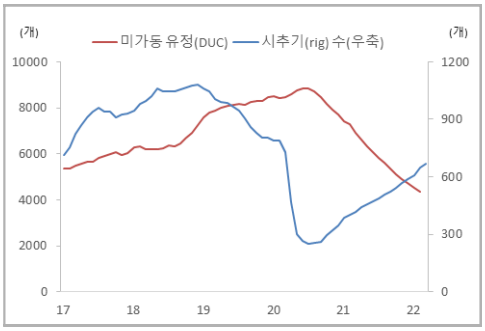
5)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1.6%, 천연가스생산의 16.6%를 차지

| 그림 20 | 미 원유생산과 WTI 가격 추이 및 전망



주: 원유생산량과 WTI가격은 2022년 3월부터 전망치
자료: EIA, Bloomberg

| 그림 21 | 미국 미가동 유정 및 시추기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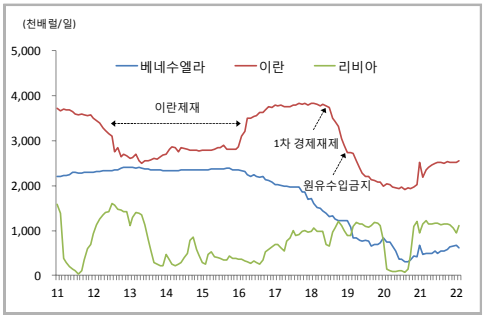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원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감소는 향후 유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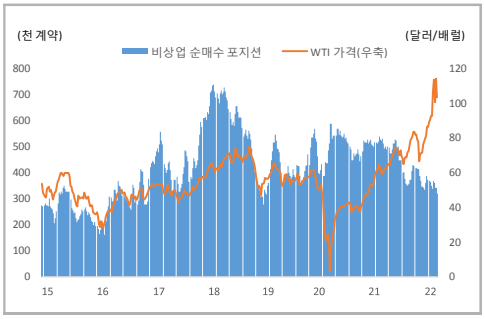
- 미국의 긴축기조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WTI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
- NYMEX 시장의 투기성 자금에 의한 비상업용 WTI 순매수 포지션은 2022년 3월말 기준 3.19만 계약으로 2021년 6월말 대비 39.4% 감소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위험자산의 투자심리를 약화시켜 원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 그림 22 |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생산량



자료: Bloomberg

| 그림 23 | WTI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과 WTI 가격 추이



자료: CFTC,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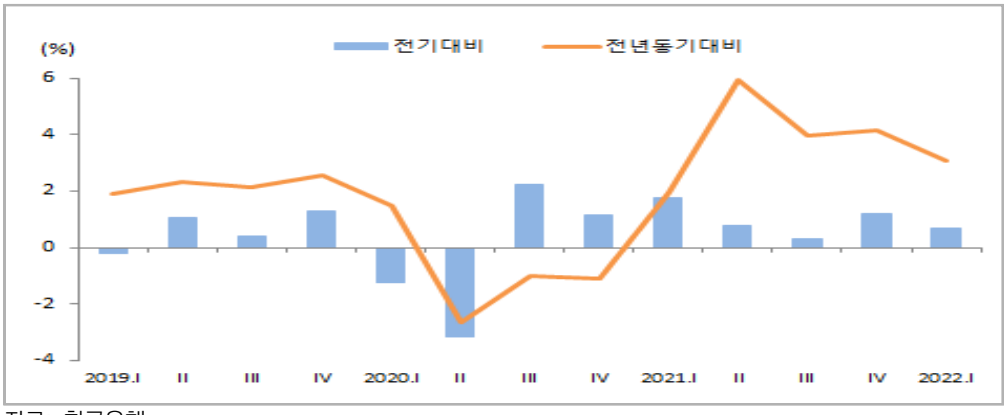
2. 국내 경제여건

가. 경제성장률 추이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1/4분기 중 전기대비 0.7% 성장

- ○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투자는 공급망 차질, 건설 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
- ○ 반면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를 보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이 늘어 증가

| 그림 24 |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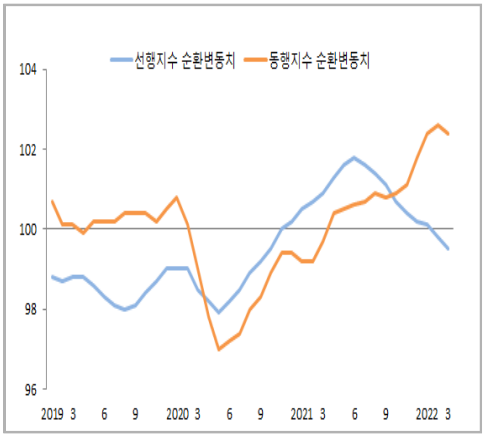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나. 경기 국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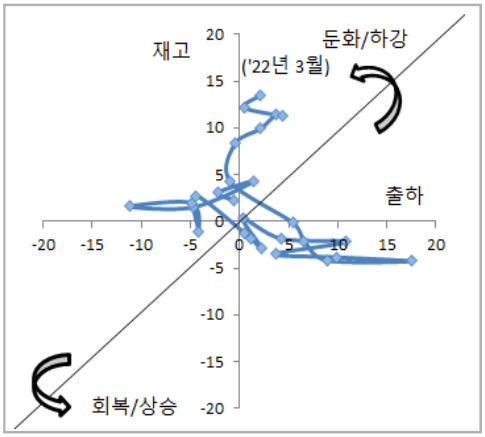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서로 다른 움직임 시현

- ○ 실제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
- ○ 그러나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건설수주액을 제외한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등 대부분이 감소
- ○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에 따르면, '22년 3월 현재 출하보다 재고 증가율이 높은 경기 둔화 국면에 위치

| 그림 25 | 경기 순환변동치 추이



| 그림 26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자료: 통계청

다. 내수와 수출 여건

❑ 민간소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 국민계정 상의 민간소비는 2022년 1/4분기 중 준내구재와 서비스가 줄어 전기대비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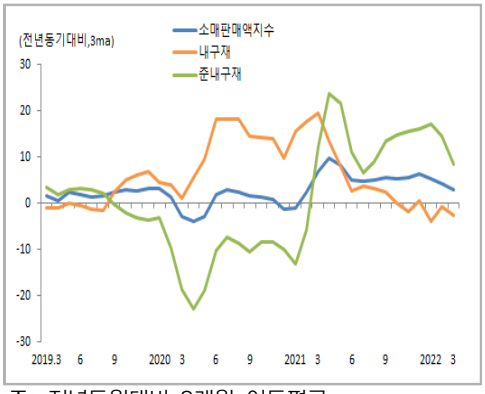
○ 월별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내구재판매 부진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재택과 자가격리가 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도 큰 폭으로 둔화

❑ 고정투자의 경우 설비투자 둔화세가 지속

○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가파른 둔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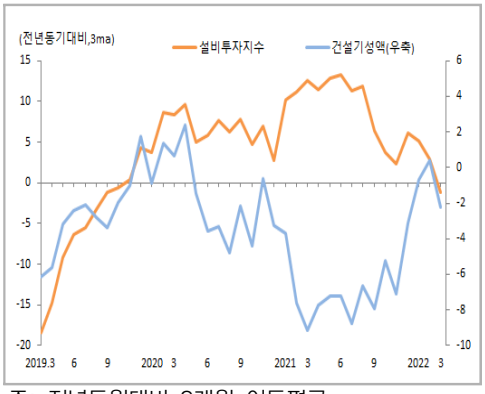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2~3월 중 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축 공사 실적이 감소하는 등 조정을 받는 모습

| 그림 27 | 소매판매액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 그림 28 | 고정투자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 수출(통관 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IT제품과 석유제품, 철강 등 비IT제품 모두 호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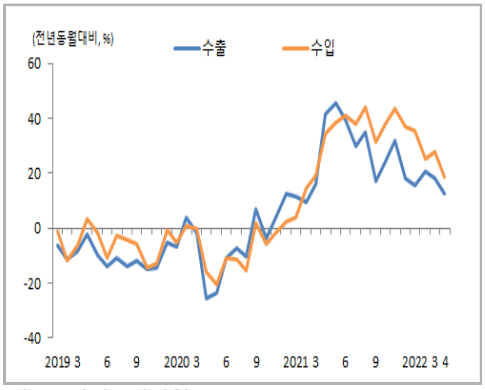
– 통관일수를 조정한 일평균수출액의 경우 3월 중 27.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수입(통관 기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및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과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

– 수입증가율은 '21년 연간 31.5% 증가한 데 이어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26.8%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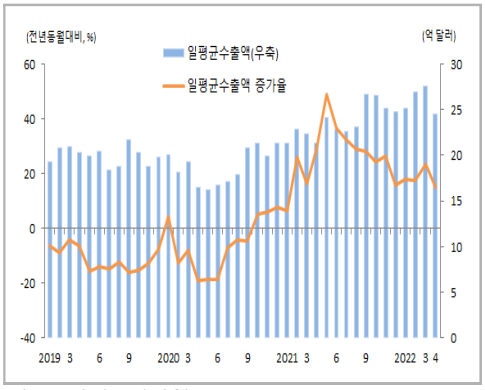
○ 무역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66.2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

| 그림 29 | 수출과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그림 30 | 일평균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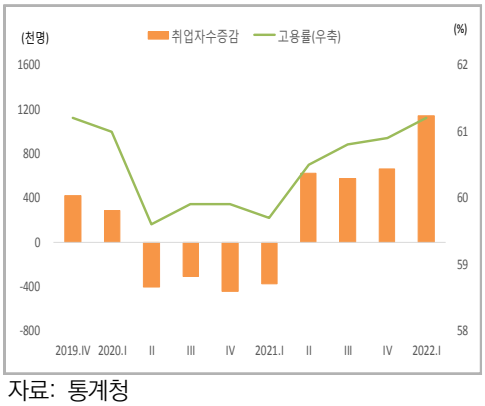
라. 고용과 물가 여건

❑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

○ 전체 취업자수는 금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00.1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지난해 1/4분기(5.0%)보다 1.5%p 낮아진 3.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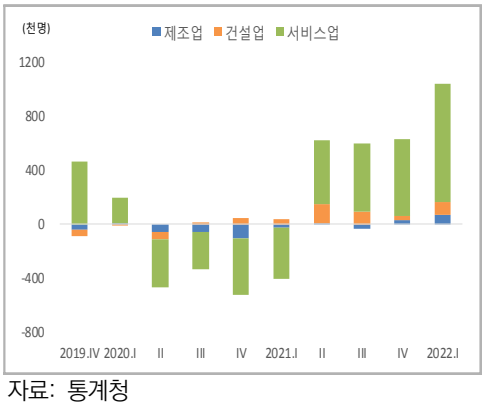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수도 증가 전환

| 그림 31 | 취업자수 증감과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32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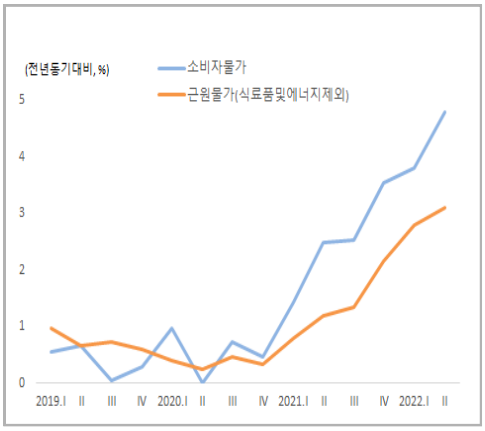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물가는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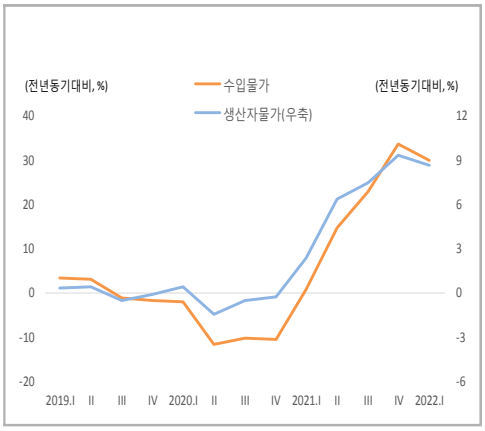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중 전년동월대비 4.8%까지 상승하고 근원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

| 그림 33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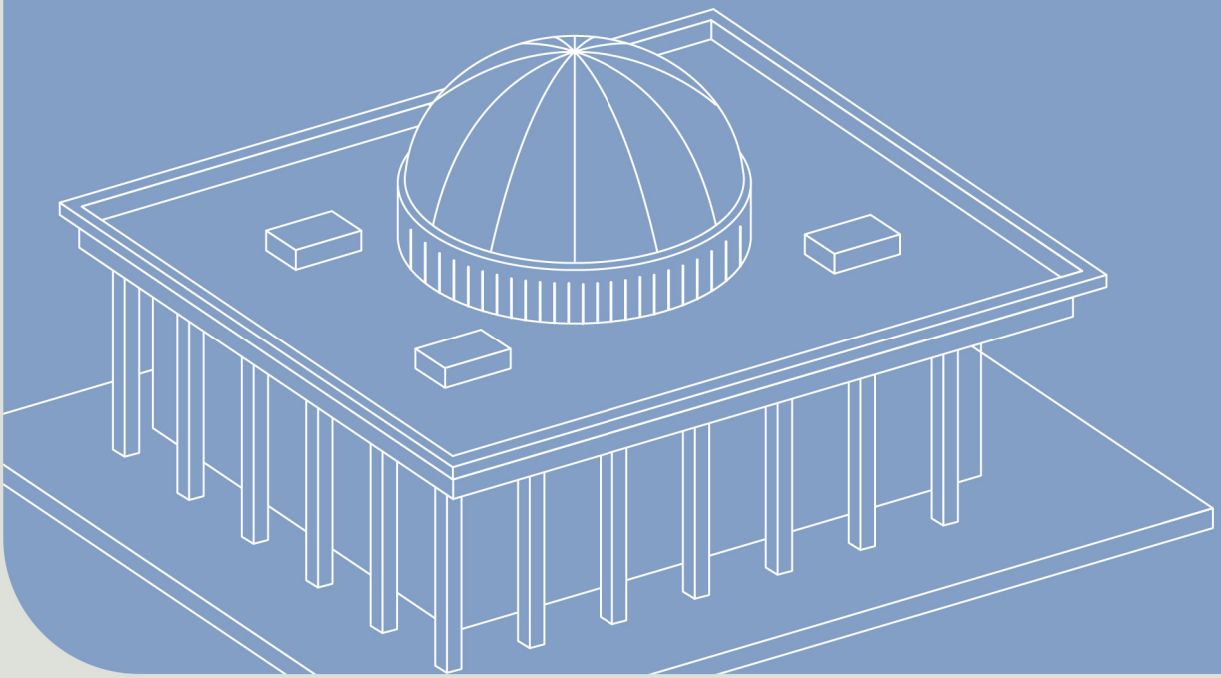


| 그림 34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주: 2022년 1/4분기는 1~2월 평균(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2022년 1월 수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

2022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2. 민간소비
3. 건설투자
4. 설비투자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 대외거래
7. 고용
8. 소비자물가
9. 금리
10. 환율

Ⅱ. 2022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 **2022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4.0%)보다 1.4%p 낮은 **2.6%**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4.0	2.6	▪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 ▪ 수출 호조세 지속	▪ 통화정책 긴축 기조 강화 ▪ 중국 경제 둔화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2022년 국내경제는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2.6% 성장할 전망

○ 올해 국내경제는 설비투자가 둔화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민간소비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

–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겠으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친환경·신성장 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 등이 회복 제약요인이기는 하나 2018년 이후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부진에서 벗어나며 소폭 증가 전환할 전망

– 총수출과 총수입은 재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겠으나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 경제성장의 주요 하방 위험 요인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 기조 강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민간소비 및 투자가 위축

○ 중국 경제가 봉쇄 위주 고강도 방역정책 고수 등으로 가파르게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로 인한 공급망 제약이 장기화되며 수출 둔화

| 표 2 | 2022년 국내 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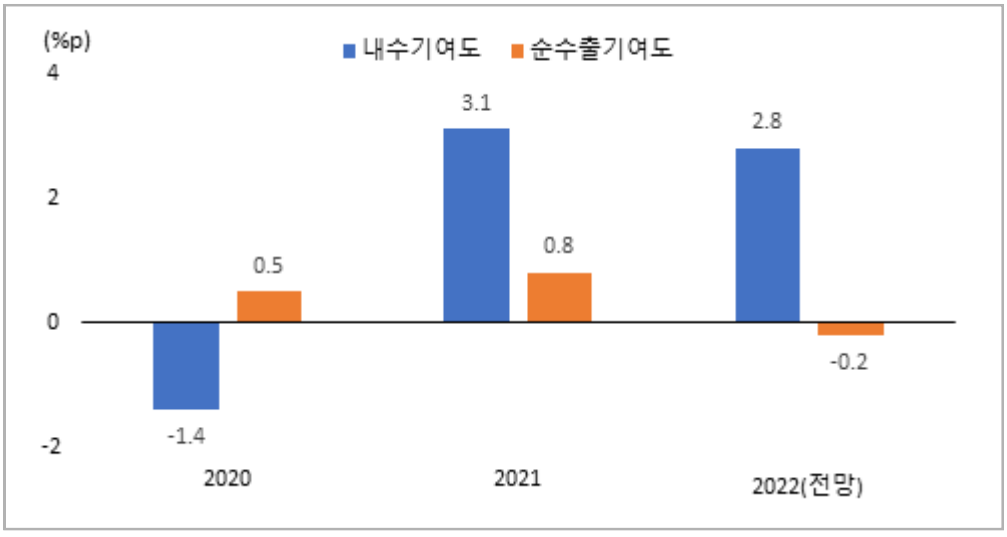
	2020	2021	2022
실질 국내총생산(GDP)	-0.9	4.0	2.6
민간소비	-5.0	3.6	3.4
건설투자	-0.4	-1.5	0.5
설비투자	7.1	8.3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0	4.1
총수출	-1.8	9.9	4.4
총수입	-3.3	8.5	5.4
경상수지(억달러)	759	883	550
상품수출(통관)	-5.5	25.7	6.8
상품수입(통관)	-7.1	31.5	9.8
GDP디플레이터	1.3	2.3	2.2
소비자물가	0.5	2.5	4.0
취업자수증감(만명)	-21.8	36.9	45.0
실업률	4.0	3.7	3.5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80	1,144	1,210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1.0	1.4	3.0
명목 국내총생산(GDP)	0.4	6.4	4.8

주: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환율과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2022년 지출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

- ○ 2022년 지출 부문별 성장기여도: 내수 2.8%p, 순수출 -0.2%p
- ○ 내수성장기여도의 대부분은 소비(민간+정부)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기인하며 설비투자는 지난해 0.7%p에서 2022년 0.0%p로 성장기여도가 하락할 전망
- ○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며 지난해 0.8%p에서 2022년 -0.2%p를 기록할 전망

| 그림 35 |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8%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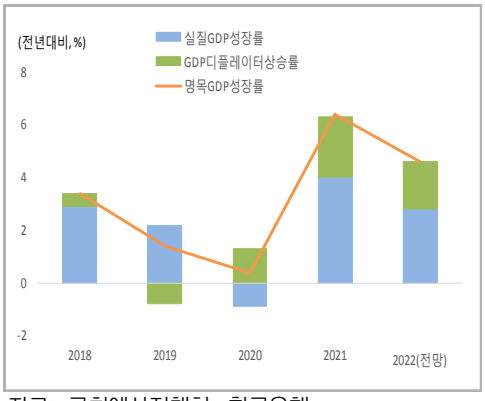
- ○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하락으로 2021년(6.4%)보다 1.6%p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 −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4.8% 전망) = 실질 국내총생산(2.6% 전망)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2.2% 전망)
  - −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6.4%) = 실질 국내총생산(4.0%)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2.3%)
-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디플레이터가 높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은 내수디플레이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상회하며 교역조건이 악화될 전망

○ 우리나라의 2022년 명목GDP 규모는 전년대비 약 100조원 내외 증가한 2,156조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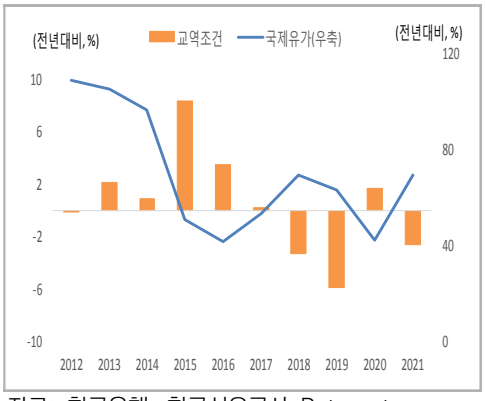
- 명목GDP 규모(조원): ('20년)1,933→('21년)2,057→('22년 전망)2,156

| 그림 36 | 명목GDP 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37 | 국제유가와 교역조건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 민간소비

• **2022년 민간소비**는 전년(3.6%)보다 0.2%p 낮은 **3.4%** 증가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3.6	3.4	▪ 일상회복 추진 ▪ 서비스 소비 회복 ▪ 정부 지원 정책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 이자부담 증가 ▪ 물가상승 압력 확대

❑ 2021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와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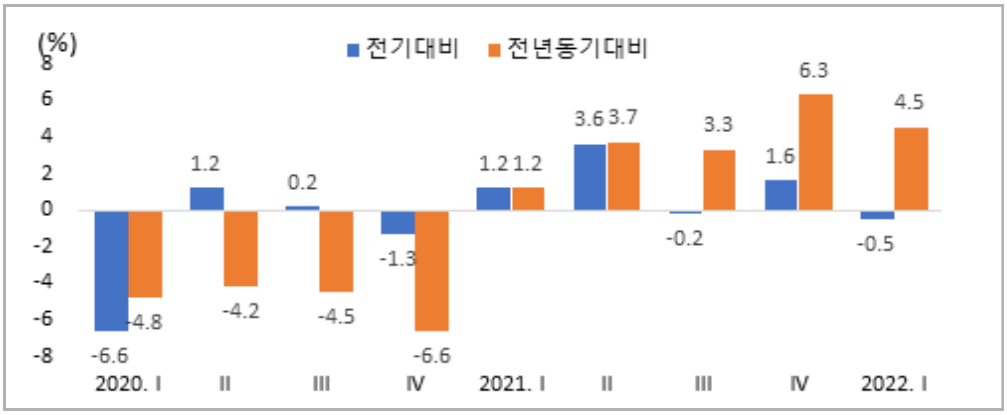
○ 2021년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소비심리의 개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4.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3.6%)을 기록

– 1/4분기와 2/4분기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6]와 백신 접종[7] 확대에 힘입어 크게 확대

– 3/4분기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대면 서비스 소비가 부진하여 전기대비 소폭 둔화

– 4/4분기는 백신 패스 및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와 오락·스포츠 및 문화 등 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기대비 1.6% 증가

| 그림 38 |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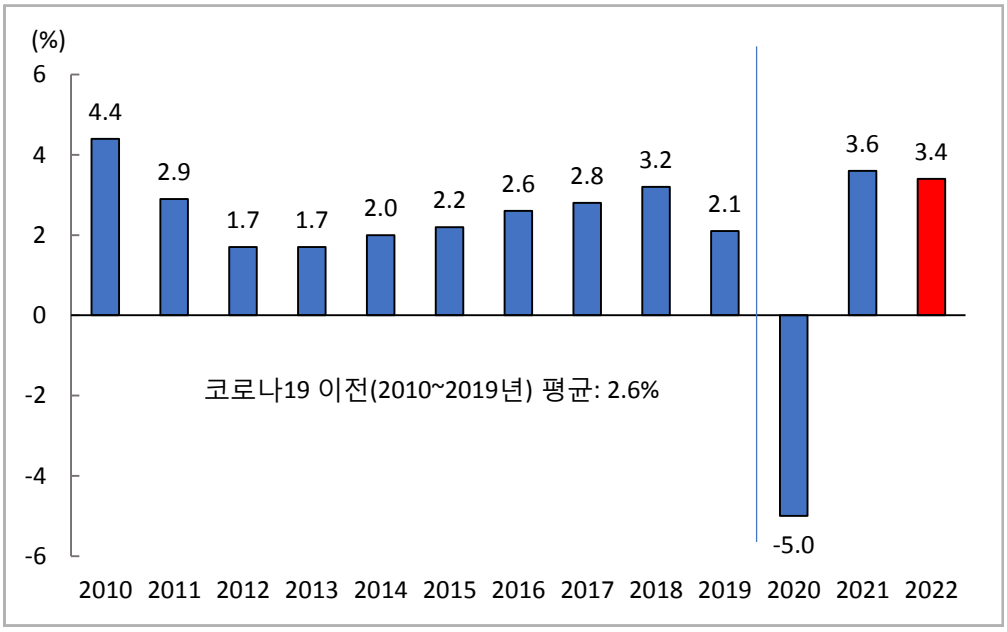
6) 2021년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가 한 단계 완화됨
7) 2021년 2월 26일 국내 백신 접종 개시

❑ 2022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21년(3.6%)에 비해 성장이 소폭 둔화하여 2022년에 3.4% 증가할 전망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전기대비 0.5% 감소
- 그러나 2/4분기 이후 방역 해제와 소비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 그림 39 | 민간소비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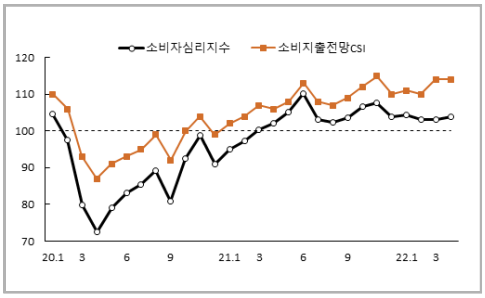
❑ (상방요인) 소비심리 개선, 서비스 소비 및 국외소비 회복, 정책지원

○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3월, 4월 소비자심리 및 소비지출 전망 CSI가 높은 수준을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코로나19 이전(2019년) 98.9, 2022년 1~4월 평균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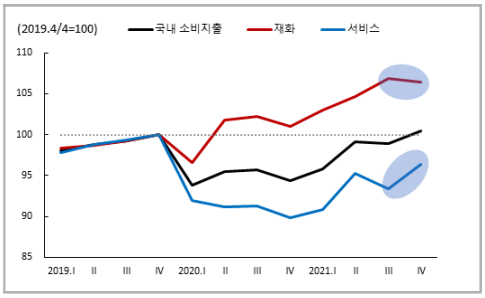
○ 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서비스 소비가 지난 2년간의 부진으로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그림 40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통계청

| 그림 41 | 코로나19 이후 재화 형태별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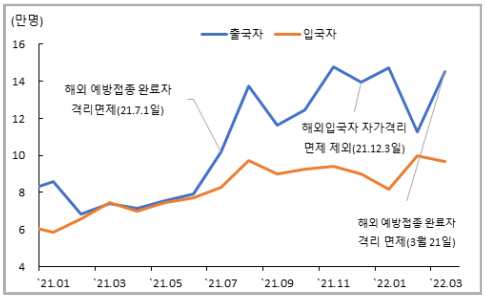


주: 재화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합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세계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확대되면서 해외여행과 유학 수요가 증가하여 거주자 국외소비[8]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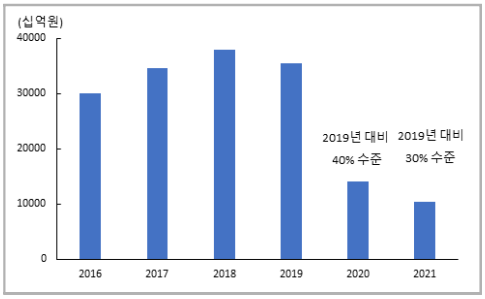
- 2022년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해외여행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2022년 1분기 출국자 수는 2021년 1분기 대비 1.8배 급증

| 그림 42 | 국내 출입국자 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 그림 43 | 거주자 해외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팬데믹 피해 부문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소비 여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

8) 거주자의 국외 소비지출은 국제수지 통계의 해외여행 지급과 유학연수 지급 항목의 합계인 여행 지급을 원화로 환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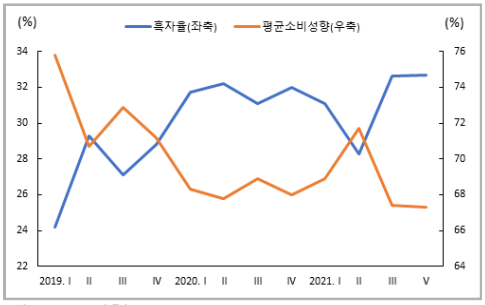
- 정부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대전' 등 소비를 촉진하며 피해업종을 지원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과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을 통하여 민생경제를 지원

❑ (하방요인) 대내외 불확실성, 가계 이자부담 증가, 실질 구매력 약화 등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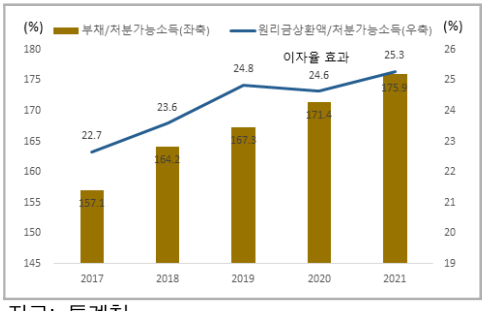
- 이 경우 금년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소비와 거주자 해외소비의 회복이 정체될 가능성

| 그림 44 | 가계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 그림 45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



자료: 통계청

○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

- 2020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높은 물가상승률과 교역조건 악화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어 민간소비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높은 물가상승률이 가계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 여건 개선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
- 원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상승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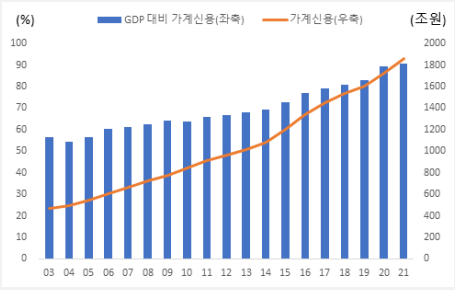
[BOX 1] 가계부채 누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2021년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1])는 1,862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90.5% 수준

○ 가계부채는 2004년 이후 민간소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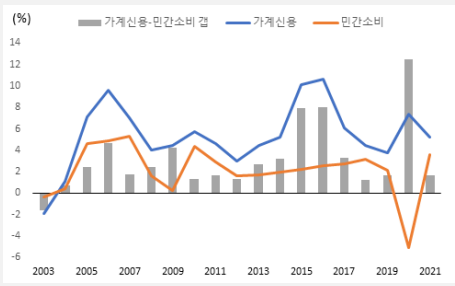
– 실질 가계부채의 2004년~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5.8%)은 민간소비(2.3%)의 두 배 이상을 기록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민간 소비 및 가계부채 증가율



주: 가계신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자료: 한국은행

❑ 가계부채는 2020년 이후 자금 수요가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

○ 2000년대 이후 금융 심화는 가계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

○ 특히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완화적 금융 여건은 차입비용을 낮추었고 자산시장 호황은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를 확대함

○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부채상환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도 확대됨

– 신용대출 중 부채상환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 ('19.3)24.3→('20.3)25.7→('21.3)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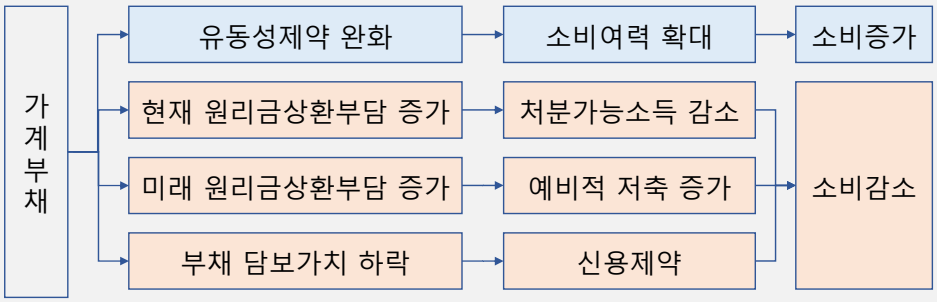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의 수준과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짐

○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는 유동성제약을 완화하여 소비를 촉진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민간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음

○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채상환 부담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침

○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부채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민간소비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될 수 있음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금리인상기에 누적된 가계부채는 소비회복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21년 가구당 부채는 8,801만원 수준이며, 2021년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인 3.10%를 가정하는 경우 2021년 가구당 이자 부담은 273만원 수준

– 2022년에 대출금리가 50bp 상승하면 추가 이자부담이 44만원이 증가하는 효과

○ 가계부채가 향후 경기회복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이 시급

1) 가계신용은 금융기관(공적금융 포함)이 일반가계에 제공한 전체 신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괄
가계대출은 금융기관(공적금융 포함)이 가계에 공여한 대출이며, 판매신용은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포괄

3. 건설투자

• **2022년 건설투자**는 전년(-1.5%)보다 2.0%p 높은 **0.5%** 증가 전망

증가율		전망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1.5	0.5	▪ 주택수주 확대 ▪ SOC 예산 증가	▪ 건설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 자금조달 비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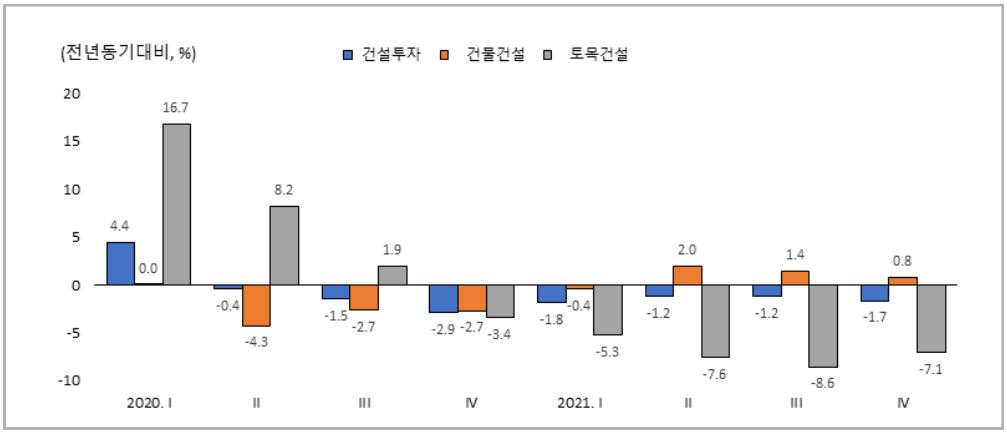
❑ 2021년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부진이 이어지며 감소

○ 건설자재 가격상승, 자재 수급불안과 기상악화로 인한 조업 차질,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 시차 확대[9] 등으로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짐

○ 부문별로 건물건설이 2/4분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나 토목건설은 연중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발주자별로 민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 그림 46 |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9) 일반적으로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에 4~6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이 시차가 확대되며 건설수주 증가가 건설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표 3 | 2021년 건설투자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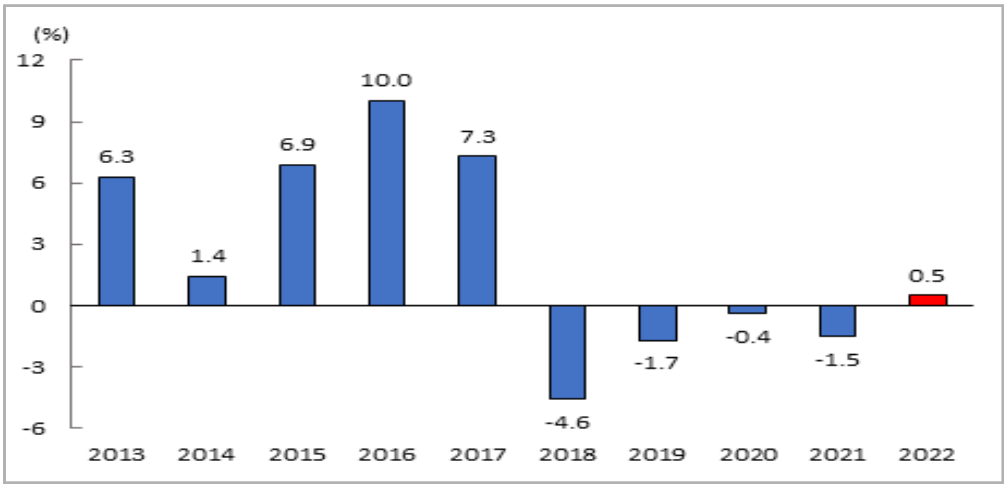
구분		동행지표		선행지표
		건설투자[1]	건설기성[2]	건설수주(경상)
발주자별	민간	0.3	-	13.6
	정부	-7.4	-	-2.9
형태(공종)별	건물(건축)	1.0	-3.5	8.0
	토목	-7.2	-14.7	-6.4
전체		-1.5	-6.7	9.6

주: 1)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산출액 + 부대비용 - 재고증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전수 추계
2) 통계청의 건설기성(= 산출액 + 매출VAT)은 상위 50%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2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

○ 2022년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증가로 전화되어 0.5% 성장이 전망됨

| 그림 47 | 건설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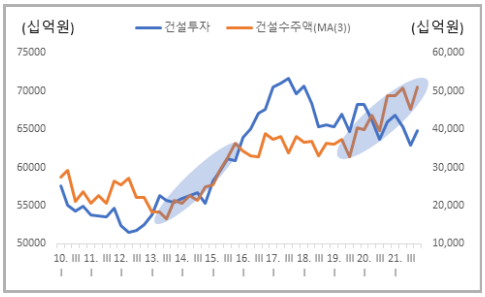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건설투자는 주택수주 확대, SOC 예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소폭 반등에 그칠 전망

- 2019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호조로 인해 민간 주도의 건설수주가 확대되었으며, 2022년 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그러나 2022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의 지속,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인력난 등으로 2.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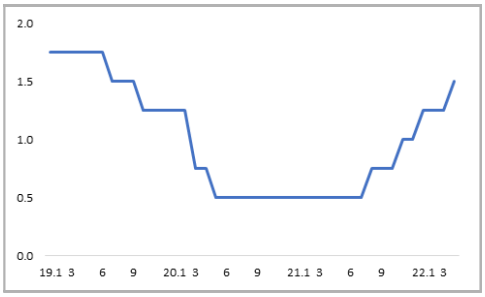
– 하반기 중 건설자재 가격 및 수급 악화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나 인건비 및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

| 그림 48 |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49 |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 건물건설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는 주택 인허가 및 신규 착공 실적 등 주요 선행지표 실적이 개선

– 2021년 주택 인허가 실적(동수 기준, 19.2%)과 주택 착공실적(동수 기준 10.7%, 연면적기준 16.2%)이 증가

– 2020년 이후 주택 착공 건수가 준공 건수를 초과하여 주택건설 투자 확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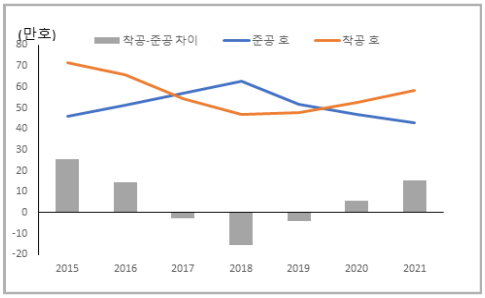
– 다만, 2021년 3/4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는 주거용 건물 투자 회복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

○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상업용 건물건설에서 증가하나 공업용 건물건설에서 감소함에 따라 정체될 전망

– 상업용 건물건설은 소상공인 BSI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자영업 업황 개선과 함께 회복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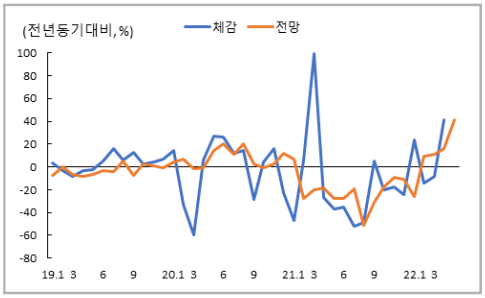
– 다만, 2021년 높은 증가율(8.3%)을 보였던 설비투자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공업용 건물건설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림 50 | 주택 준공 및 착공 실적



자료: 통계청

| 그림 51 | 소상공인 BSI 추이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토목건설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정체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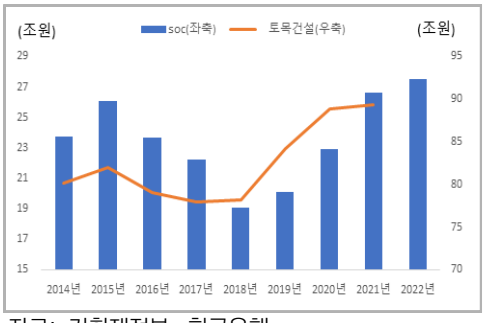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뉴딜 등 정부투자가 증가하고 SOC 예산이 역대 최대인 28조원 규모(본예산 기준)를 기록

- 2022년 SOC 예산에서 도로, 철도 등 토목 관련 사업이 확대됨
- SOC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20)23.2→('21)26.5→('22)28.0

○ 공공부문의 토목건설은 건설비용이 높아지면 실질 토목투자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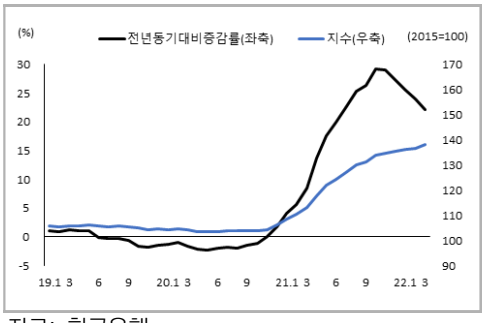
- 2021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2년 1/4분기까지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

| 그림 52 | SOC 예산 및 토목건설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그림 53 | 건설 중간재 공급물가



자료: 한국은행

4. 설비투자

● **2022년 설비투자**는 전년(8.3%)보다 8.1%p 낮은 **0.2%** 증가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8.3	0.2	▪ IT기기 수요증가 ▪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 ▪ 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 투자비용 상승 ▪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 ▪ 2021년의 기저효과

❑ 2021년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

○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 가격 상승, IT 부문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연간 12.2%의 높은 증가율 기록

– 기계류 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상반기)7.2→('21년 하반기)8.6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상반기)67.1→('21년 하반기)34.4

○ 운송장비 투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 위축으로 연간 2.4% 감소

– 운송장비 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상반기)3.8→('21년 하반기)-8.1

– 자동차부품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상반기)26.4→('21년 하반기)1.5

○ 2021년 월별 설비투자지수는 2021년 9월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월평균 9.2%의 증가율을 기록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1/4분기)12.0→(2/4분기)12.7→(3/4분기)6.1→(4/4분기)5.7

| 표 4 | 설비투자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설비투자		-6.6	7.1	8.3	12.4 (6.1)	12.8 (1.1)	4.2 (-2.4)	4.0 (-0.7)
형태별	기계류	-10.2	8.0	12.2	17.4 (7.5)	14.5 (-0.3)	11.0 (0.4)	6.1 (-1.6)
	운송장비	4.7	4.7	-2.4	-2.4 (2.0)	8.3 (5.6)	-14.8 (-10.9)	-1.4 (2.6)

주: 괄호안은 계절조정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설비투자는 불확실성 증가와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둔화될 전망

○ 2022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0.2% 증가하여 지난 2년간 높은 성장대비 둔화될 전망

- 설비투자(전년대비, %): ('20년)7.1→ ('21년)8.3→ ('22년 전망)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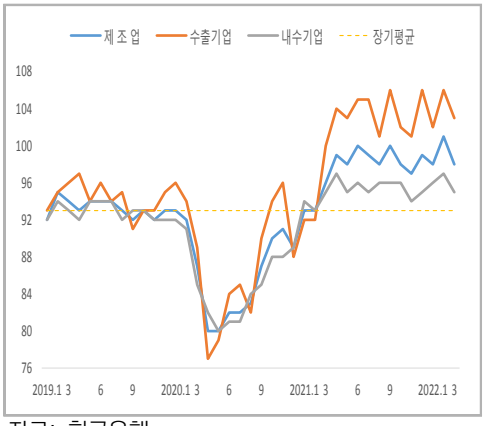
○ IT부문에서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비IT부문에서는 친환경·신성장 중심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선행지표인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2021년 이후 장기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21년 11월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임

○ 다만 기저효과[10]로 인해 2022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하반기 중 증가 전환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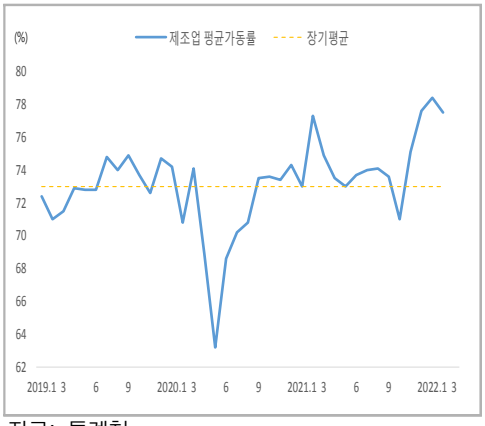
10) 2021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12.6%

| 그림 54 | 제조업 설비투자 BSI



자료: 한국은행

| 그림 55 | 제조업 평균가동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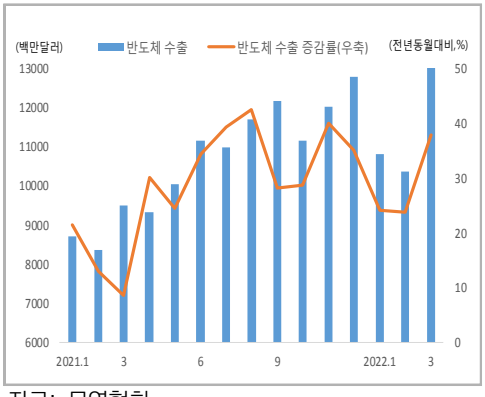
❑ (상방요인) IT부문 차세대 기술 및 친환경 관련 신규 투자 확대

○ IT부문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IT기기 수요증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도입에 따른 시설 투자 수요 확대

– 반도체 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미세 공정) 도입에 따른 신규 설비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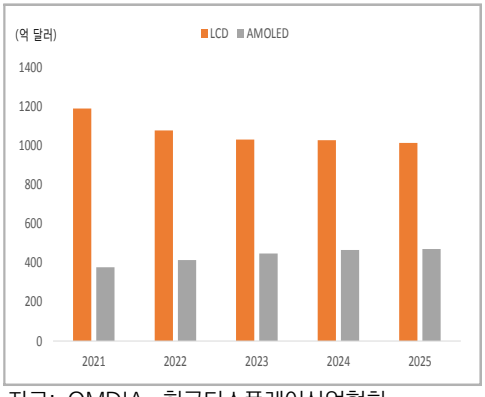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용 중소형 OLED 시장 확대로 관련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 확대

| 그림 56 | 반도체 수출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 그림 57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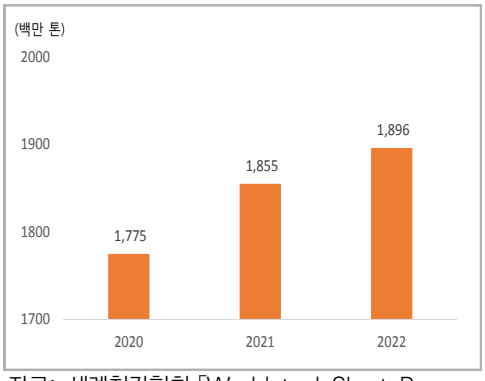


자료: OM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비IT부문은 전방산업 업황 개선으로 신규투자가 증가하는 한편 친환경 경영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탄소중립 설비투자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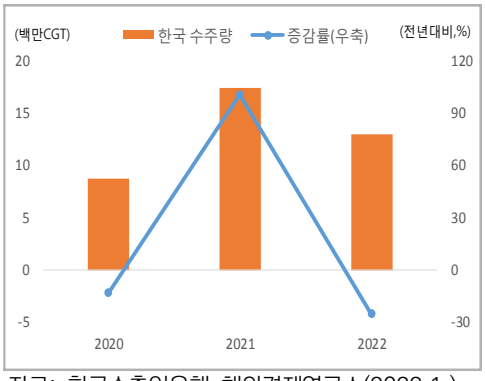
- 자동차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철강은 자동차 등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투자도 확대
- 조선은 2022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설비투자 확대

| 그림 58 | 세계 철강수요 전망



자료: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2021.10.)

| 그림 59 | 국내 조선 신규 수주량 전망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2.1.)

❑ (하방요인) 투자비용 상승 및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상승하며 신규 투자 감소

○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대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설비투자가 감소할 가능성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4.0%)보다 0.1%p 높은 **4.1%** 증가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4.0	4.1	▪ 첨단산업분야 선제적 투자 ▪ 민간부문 신기술 투자 ▪ 정부부문 혁신산업 투자	▪ 경기둔화 ▪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 2021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대비 증가

○ 연구개발(R&D)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11] 투자가 모두 늘며 4.0% 증가

○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2021년 13.1%) 등으로 연간 3.4% 증가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비대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5.5% 증가

| 표 5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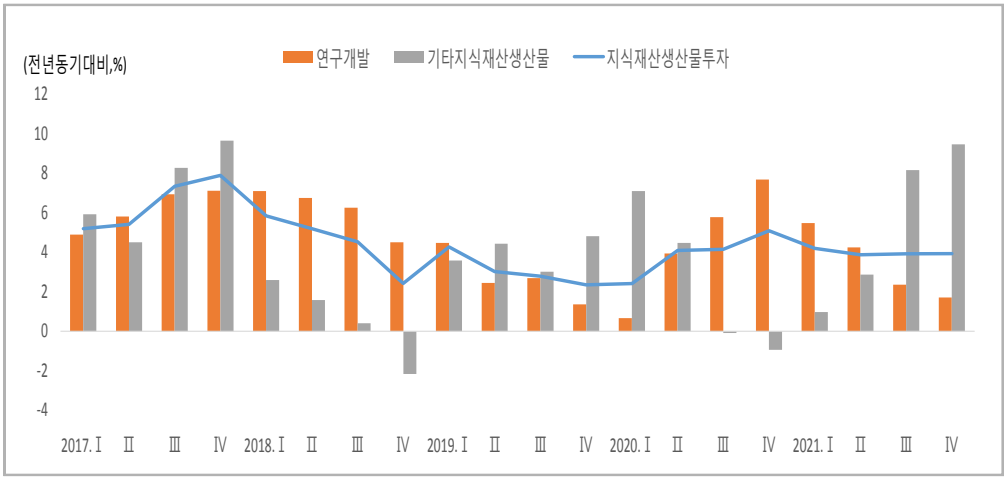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1	4.0	4.0	4.2 (0.2)	3.9 (1.4)	3.9 (0.8)	3.9 (1.4)
형태별	연구개발	2.7	4.6	3.4	5.5 (-1.6)	4.2 (1.7)	2.4 (0.4)	1.7 (1.4)
	기타지식재산생산물	4.0	2.4	5.5	1.0 (5.3)	2.9 (0.7)	8.2 (1.8)	9.5 (1.4)

주: 괄호안은 계절조정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11) 오락, 문학작품, 예술품 원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광물 탐사 등

| 그림 60 | 자본재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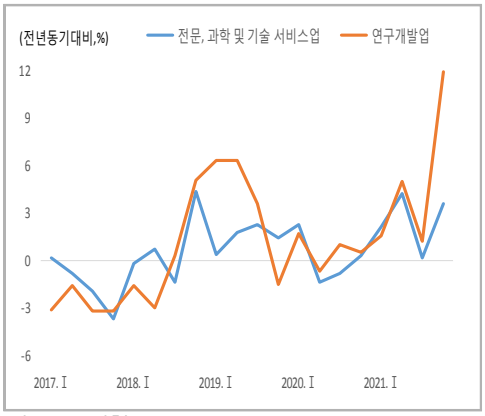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지표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생산지수도 2021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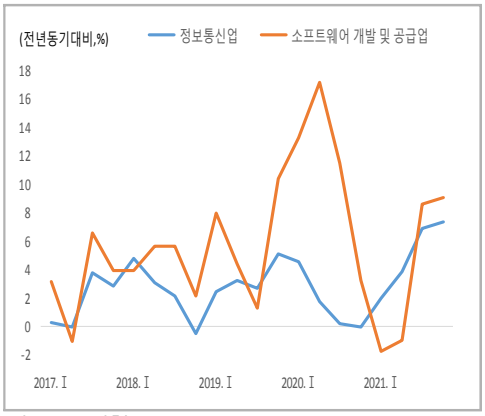
- 연구개발투자 수요와 관련이 높은 연구개발업 생산의 경우 2021년 4/4분기에 1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요와 관련이 높은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

| 그림 6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자료: 통계청

| 그림 62 |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 통계청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자율주행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선제적 투자 수요 증가로 연간 4.1%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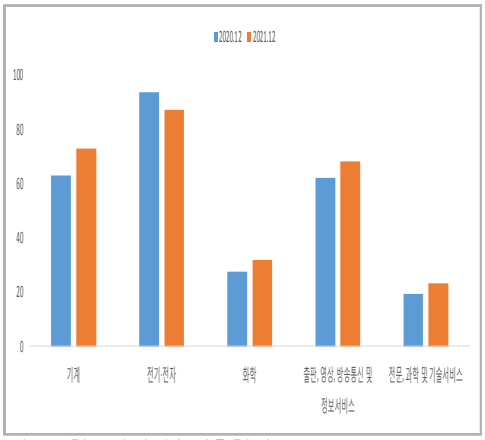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전년동기대비, %): ('22년 상반기)3.8→('22년 하반기)4.3
- 연구개발투자 부문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증가 예상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비대면 업무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 전년에 이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민간부문은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신기술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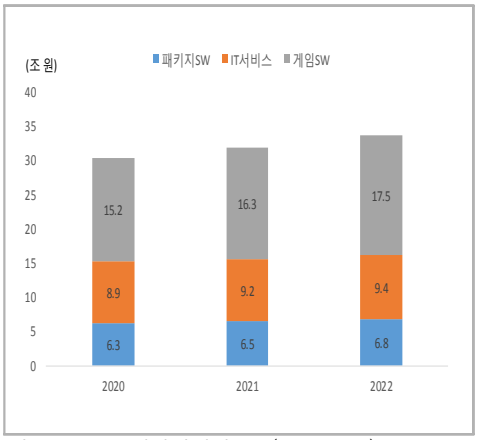
- 2021.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개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4.4만 개를 기록
- 2022년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그림 63 | 기업부설연구소 개관 추이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그림 64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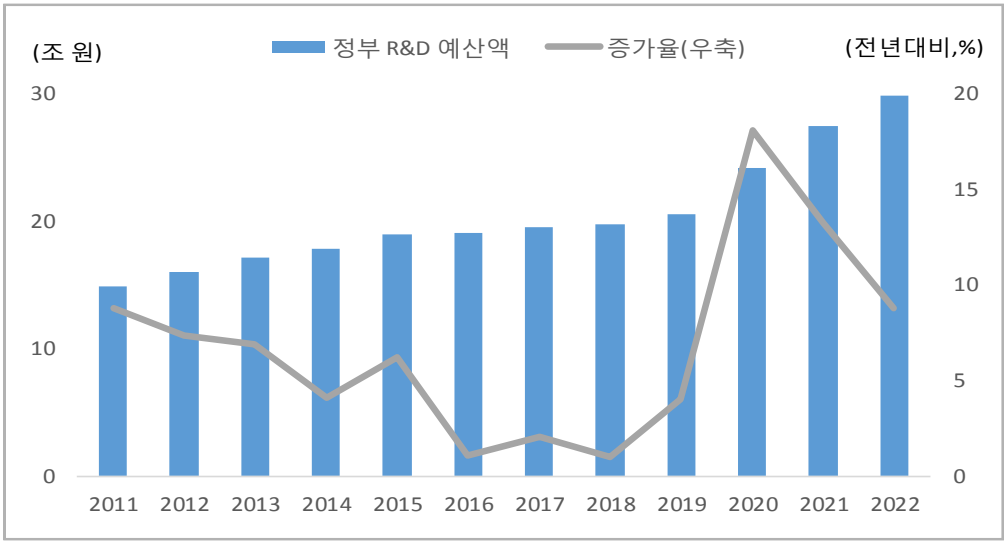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1.11.)

❑ (정부부문) 전년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

○ 2022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혁신산업(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미래신산업(우주·항공 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 공공부문의 SW사업예산 규모와 상용SW구매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8.9%, 3.4% 증가
- 정부 SW 사업예산 규모(조원): ('20년)4.8→ ('21년)4.9→('22년)5.4
- 정부 R&D 예산 규모(조원): ('20년)24.2→ ('21년)27.4→ ('22년)29.8

| 그림 65 | 정부의 R&D 예산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12.)

[BOX 2] 주요국의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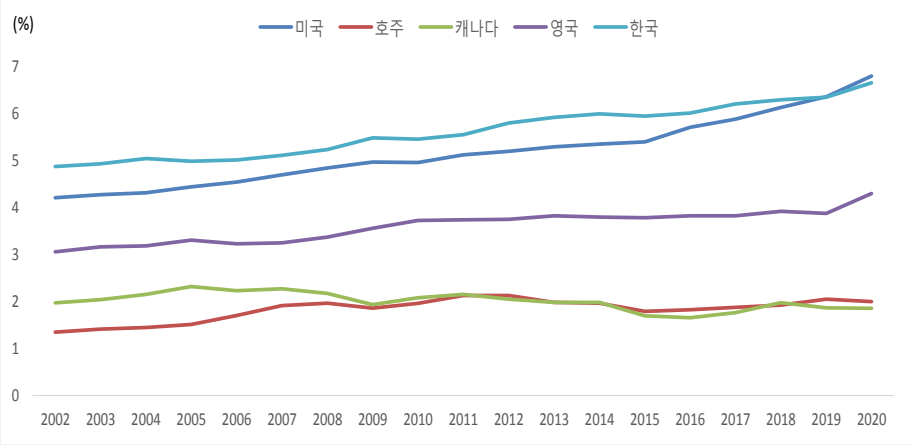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지식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성·효율성 증가에 기여**

-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1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3.6%를 기록
- ○ 주요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컨텐츠 개발 등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GDP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 2020년 기준으로 호주와 캐나다의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각각 2.0%, 1.9%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
- ○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함께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 속함
  - – 미국(6.8%), 영국(4.3%), 한국(6.7%)의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2020년 들어 각각 최고치를 기록

주요국의 GDP 대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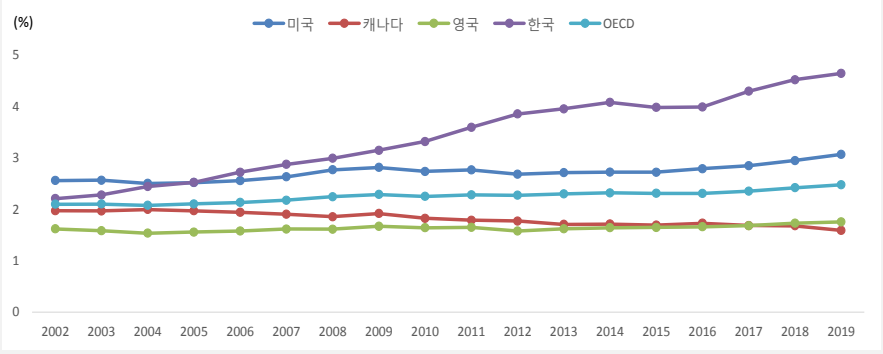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부문이 중심**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전체 GDP 대비 4.6% 비중을 차지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미국(3.1%), 영국(1.8%), 캐나다(1.6%)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전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56%에서 2020년에는 71%로 확대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추이



자료: OECD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단위: %)

연도	연구개발투자 비중
2000	55.9
2010	65.8
2015	69.6
2020	71.2

자료: 한국은행

❑ **2022년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22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한국판 뉴딜(3.5조원),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2.7조원), 소재·부품·장비(2.3조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한 29.8조원으로 확정

○ 2022에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의 R&D 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40~50%(대·중견 40%, 중소 50%)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

6. 대외거래

● **2022년 수출(통관)**은 전년(25.8)보다 19.0%p 낮은 **6.8%** 증가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25.8	6.8	▪ 글로벌 교역량 확대 ▪ 주력수출품 호조세 지속 ▪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 완화	▪ 중국 및 신흥국 경제둔화 ▪ 지정학적 리스크 ▪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지연

❑ 2021년 수출(통관)은 전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증가

○ 2021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달러를 기록

– 전세계 교역이 회복된 가운데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호조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

○ 2021년 연간 수입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6,151억달러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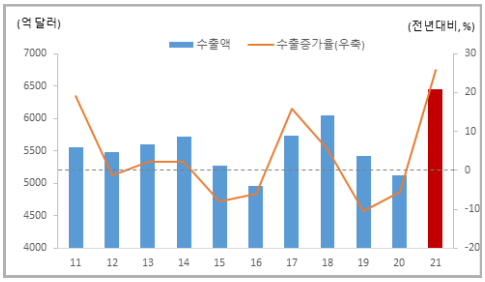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높은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으로 증가

○ 2021년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축소

– 무역수지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년(449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된 295억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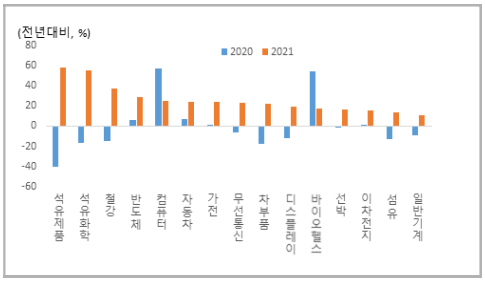
○ 2021년 무역규모는 1조 2,596억 달러로 사상 최고규모 달성

| 그림 66 | 연간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 그림 67 | 15대 품목 연간 수출 증가율



자료: 관세청

❑ 2022년 수출(통관)은 글로벌 교역량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 2022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6.8% 증가할 전망

– 수출(전년대비, %): ('20년)-5.5→ ('21년)25.8→ ('22년 전망)6.8

○ 2022년 일평균수출액은 25.1억달러 내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0년)18.8→ ('21년)23.7→ ('22년 전망)25.1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제품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2022년 수출물량이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단가의 상승폭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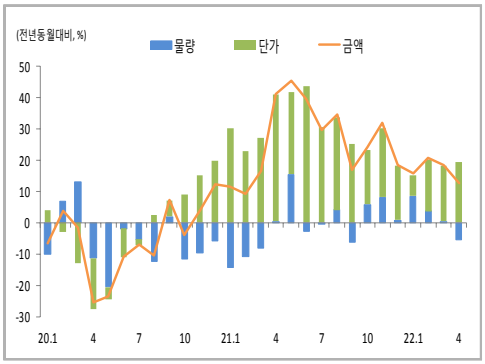
○ 수출물량의 경우 주력 수출품의 호조세 지속,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할 전망

– 수출물량은 2020년(-6.0%)에 이어 2021년 감소세(-1.2%)를 지속

○ 수출단가는 반도체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고려할 때 상승세를 지속하나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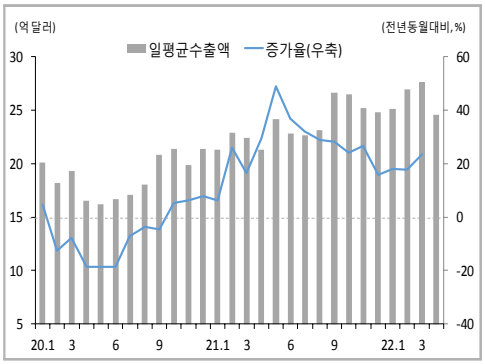
– 2021년 수출단가는 반도체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7.3%의 큰 폭 증가

| 그림 68 |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관세청

| 그림 69 | 일평균수출액 추이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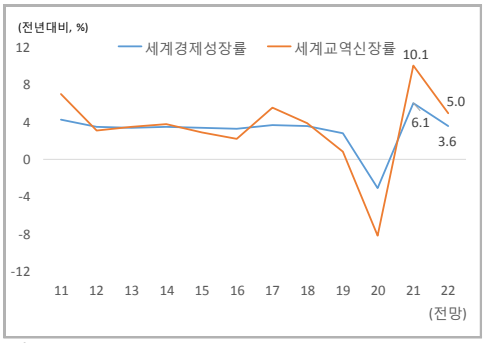
❑ (상방요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

○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2022.4월)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은 2022년 각각 3.6%, 5.0% 수준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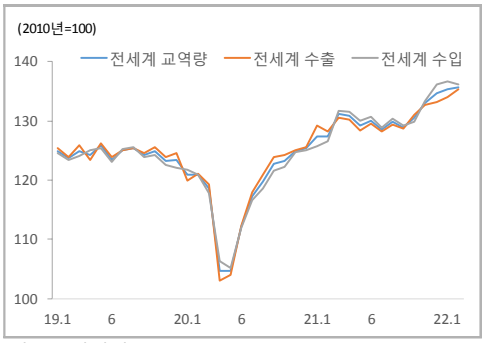
– CPB(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에 따르면, 세계교역량은 2021년 하반기부터 증가세 확대

| 그림 70 | 세계경제성장률, 교역신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IMF, World Eocnomic Outlook, April, 2022

| 그림 71 | 전세계 교역량, 수출량, 수입량 추이



자료: 네덜란드 CPB

○ 대내외 수출에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들이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

– OECD 경기선행지수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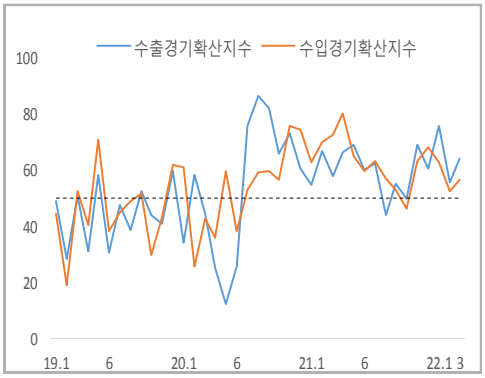
– 글로벌 제조업 PMI는 공급망 차질 등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50)을 상회하며 2022년 3월 53.0을 기록

– 2022년 수출경기확산지수와 수입경기확산지수는 각각 64.4p, 56.6p를 기록하여 향후 수출입경기의 완만한 상승세 예상

○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소폭 완화되는 모습

– 뉴욕 연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지난해 11월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망 차질이 차츰 완화되는 모습

| 그림 72 | 수출입 경기확산지수[12]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그림 73 | 공급망압력지수 추이

자료: 뉴욕연준, Bloomberg

❑ (하방요인) 신흥국 경제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지연

○ 신흥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리인상,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부채부담 등으로 성장의 하방압력 확대

- IMF 세계경제전망(2022.4월)에 따르면 2022년 신흥개도국 경제는 3.8% 성장하여 전년(6.5%)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

-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2022.3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1%p 이상 하락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약 2.5%p 상승

○ 중국경제는 기저효과 소멸, 공동부유와 기업규제 지속,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조치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IMF는 세계경제전망(2022.4월)에서 2022년 중국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무역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2022년 무역수지는 지난해(293억달러)보다 축소된 127.6억달러 전망

-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

12) 매월 일정 수출입품목의 품목별 수출입금액을 가공하여 전체 수출입액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수로, 동 지수가 50보다 크면 경기 상승 국면, 작으면 경기 하락 국면, 50일 때는 경기 전환점을 의미(실제 수출경기보다는 약 7.7개월, 수입경기보다는 약 11.5개월 선행)

- 올해 수출금액은 6,899억달러(전년대비 7.1% 증가), 수입금액은 6,763억달러(9.9% 증가) 전망

○ 교역액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1조달러대를 이어갈 전망

- 2021년 교역액 규모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1조달러대를 회복하였으며, 2022년 중에도 1조 3,64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달성할 전망

❑ 2022년 총수출(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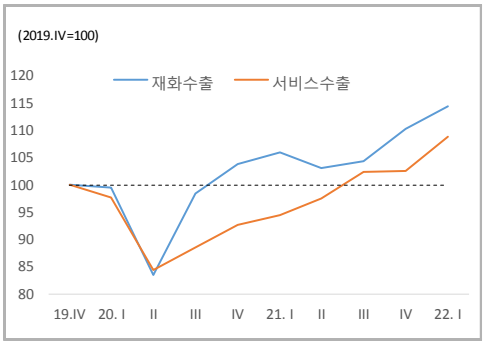
○ 총수출은 4.4% 증가할 전망

- 재화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해외수입수요가 확대되며 증가할 전망
- 서비스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하였던 외국인 방한객 국내소비지출 증가, 화물·여객 등 운수서비스 수출 확대 등으로 증가 전망

○ 총수입은 5.4%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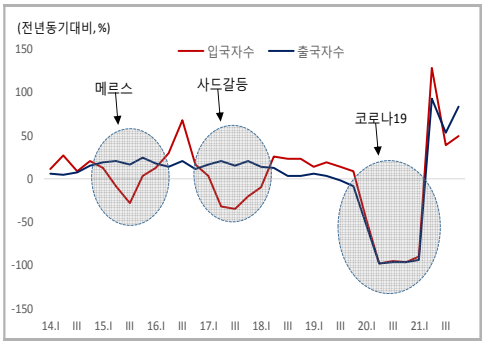
- 재화수입은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개선으로 중간재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서비스수입은 국가간 이동제한이 점차 완화되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그림 74 | 코로나19 전후 재화와 서비스수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75 | 출입국자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 2022년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2022년 경상수지는 지난해(883억달러)보다 축소된 550억달러 전망

○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적자 전환될 전망

7. 고용

● **2022년 고용**은 전년(36.9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45.0만명 증가 전망

	2021	2022[f]
취업자수 증감(만명)	36.9	45.0
실업률(%)	3.7	3.5
고용률(%)	60.5	61.2

❑ 최근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고용 회복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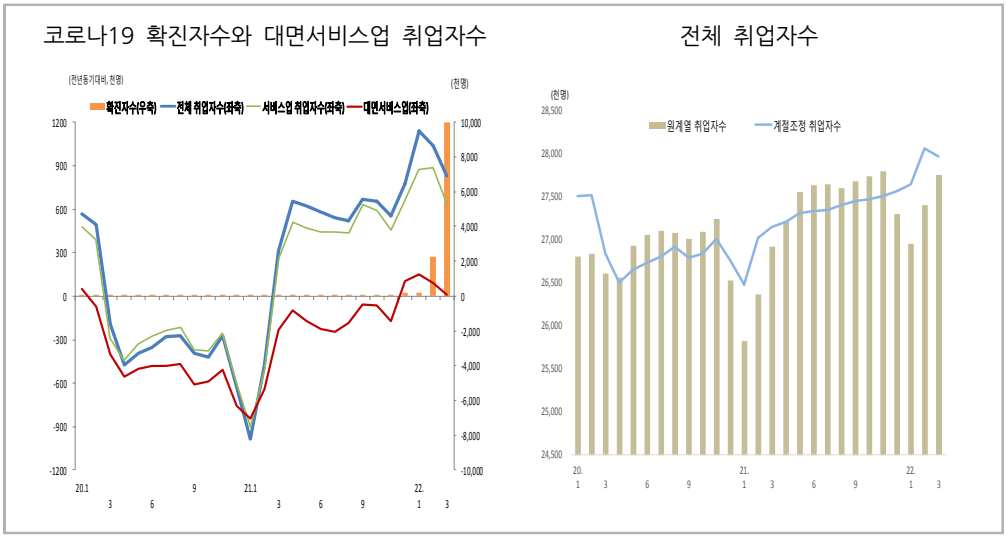
○ 2022년 1/4분기 중 고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기저효과, 수출호조, 서비스업 고용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79.7만 명 증가

– 제조업에서는 주력업종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 건설업에서는 2020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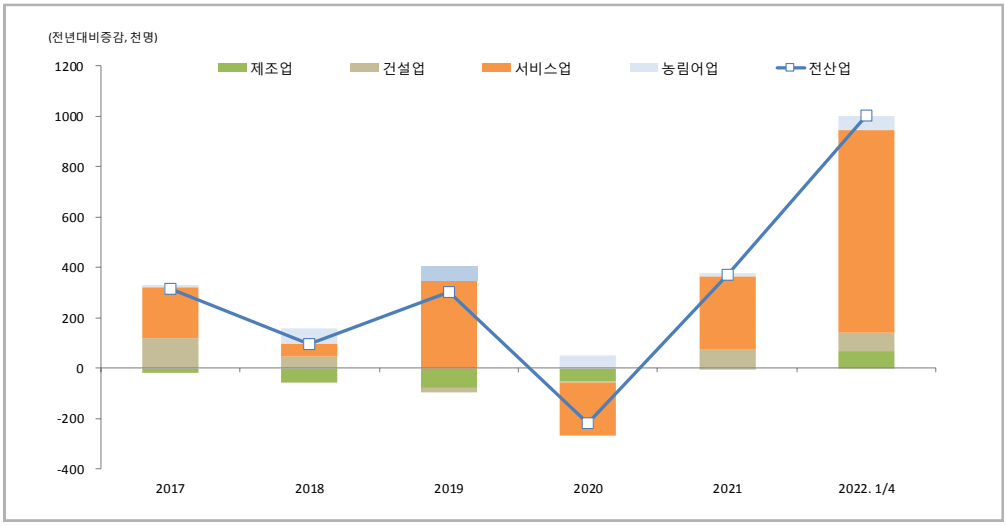
| 그림 76 | 월별 고용 증감 추이



주: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기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77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중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45만 명(1.7%) 늘어 2021년 36.9만 명(1.4%)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 서비스업에서는 방역정책 완화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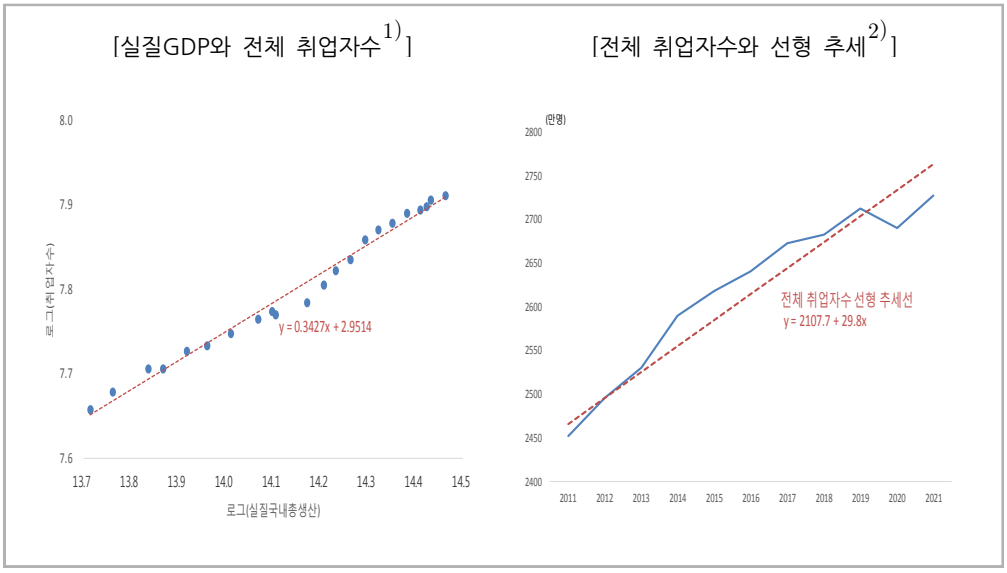
– 제조업에서는 주요 IT업종과 자동차산업[13]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며 장기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로 전환될 전망

– 건설업에서는 주택건설 경기 부진 완화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둔화되고 기저효과 등이 소멸되겠으나, 과거 추세로의 완만한 회복 국면은 이어질 전망

13) 자동차산업 생산은 차량용반도체 공급차질 완화와 신차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2021년 -0.8% 감소에서 2022년 4.1% 증가 전환될 전망(산업연구원, 2021. 12월 전망)

| 그림 78 |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수



주: 1) 2000~2021년 중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실질GDP가 1% 증가할 경우 전체 취업자수는 0.343% 증가
2) 2000~2021년 중 전체 취업자수의 선형 추세를 추정해 보면 매년 29.8만명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이상 고령층[14][15]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여 63.4%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3.5%로 전년(3.7%)에 비해 0.2%p 하락할 전망

–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증가세 둔화에 따른 효과와 견실한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7%p 상승한 61.2%에 이를 전망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확대는 노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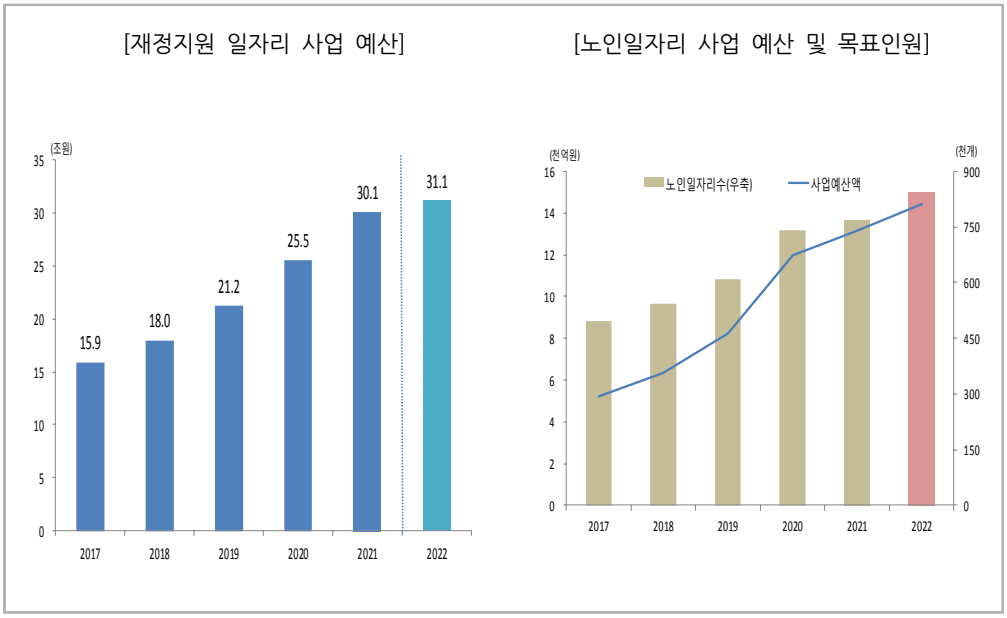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조원): ('20년)25.5→('21년)30.1→('22년)31.1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조원): ('20년)1.2→('21년)1.3→('22년)1.4

14) 15~64세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편입되며 빠르게 증가할 전망

15) 연령계층별 인구(전년대비, 만명): ('19년)15~64세 -0.5, 65세이상 32.7→('20년) 15~64세 -15.3, 65세이상 43.4→('21년)-14.1, 65세이상 43.6

| 그림 79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주: 본예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8. 소비자물가

● **2022년 소비자물가**는 전년(2.5)보다 1.5%p 높은 **4.0%**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2.5	4.0	▪ 원자재 가격 상승 ▪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확대 ▪ 원달러환율 상승	▪ 유류세 인하 연장 ▪ 기준금리 인상

❑ 2021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상승폭 확대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

–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상품 및 서비스 품목 물가가 모두 상승

○ 상품물가는 연간 3.1% 상승

– 기상악화와 가축전염병(AI, ASF) 확산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물가상승 등에 기인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19년)-1.7→('20년)6.7→('21년)8.7

– 국제유가[16] 상승률(전년대비, %): ('19년)-10.2→('20년)-32.8→('21년)67.7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19년)-0.2→('20년)-0.2→('21년)2.3

○ 서비스물가는 연간 2.0% 상승

– 전월세 등 집세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외식서비스 수요증가 등에 기인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대비,%): ('19년)-0.1→('20년)0.2→('21년)1.4

– 외식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19년)1.9→('20년)0.8→('21년)2.8

○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는 연간 1.4% 상승

– 개인서비스물가 상승폭 확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17] 등의 영향으로 상승

16)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평균

17)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무상교육·무상급식 항목이 제외되고 새롭게 추가된 마스크, 의류건조기 등 계절품목 가격이 2020년 대비 하락

| 표 6 |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0.4	0.5	2.5	1.4 (1.3)	2.5 (0.5)	2.5 (0.7)	3.5 (1.0)
근원물가		0.7	0.4	1.4	0.8 (0.7)	1.2 (0.4)	1.3 (0.5)	2.2 (0.5)
품목별	상품물가	-0.3	0.9	3.1	1.6 (1.4)	3.3 (0.5)	3.1 (0.8)	4.4 (1.7)
	서비스물가	0.9	0.3	2.0	1.3 (1.2)	1.8 (0.6)	2.0 (0.6)	2.8 (0.4)

주: 괄호안은 전기대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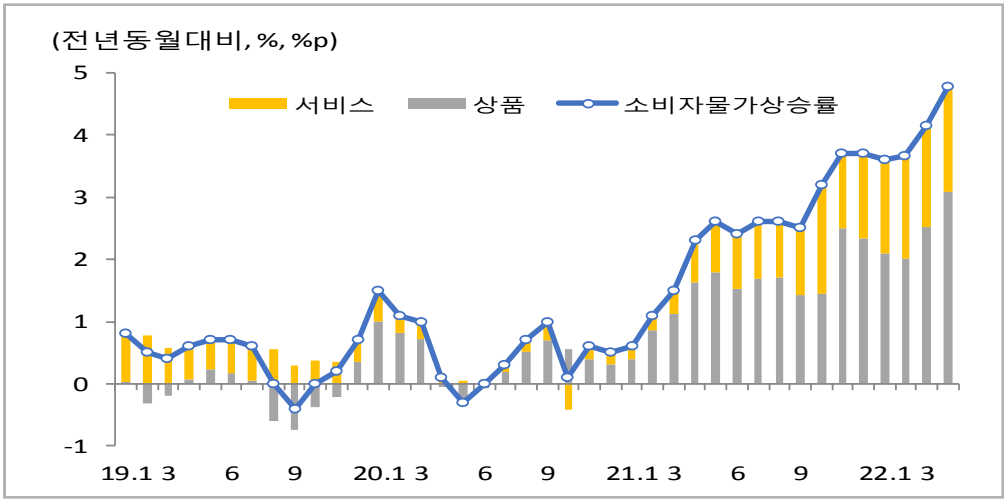
❑ 2022년 1~4월 소비자물가는 가파른 상승세 지속

○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4.8%)은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

–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

– 개인서비스 물가는 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외식수요 증가로 외식 물가의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그림 80 |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자료: 통계청

❑ 2022년 소비자물가는 2021년에 이어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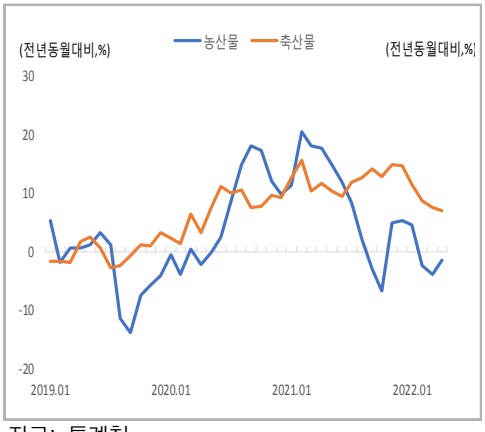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1.4%)을 크게 상회하는 연간 4.0%를 기록할 전망

❑ (상방요인) 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의 수요증가 등

○ 2022년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의 상승압력 지속,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폭 확대 등에 따라 높은 오름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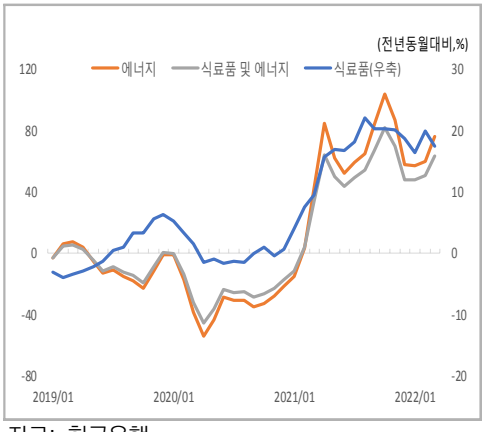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18]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상품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압력도 확대
- 올해 예정된 정부 에너지정책[19]으로 전기·수도·가스 가격상승이 예상됨

| 그림 81 |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82 | 수입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18) 2020년 세계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밀(17.7%), 옥수수(1.1%), 보리(12.1%)
2020년 세계 수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 밀(8.0%), 옥수수(13.4%), 보리(11.8%)

19) 2022년 2/4분기 이후 전기료(4월, 10월), 도시가스요금(5월, 7월, 10월) 인상 예정

| 표 7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가격 전망

		2022				2022	2023
		1/4	2/4	3/4	4/4		
에너지 (달러)	천연가스	200	160	130	130	142	91
	석탄	132	105	93	84	104	72
농산물 (센트/부셀)	옥수수	591	584	544	525	540	485
	대두	1,295	1,282	1,205	1,170	1,200	1,108
금속 (달러/백만톤)	철광석	120	102	90	85	105	85
	구리	9,620	9,350	9,400	9,500	9,395	9,550

자료: Bloomberg(2022.4.1.)

❑ (하방요인) 유류세 인하 연장과 기준금리 인상

○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지난해 11월 도입한 유류세 인하를 올해 7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폭이 제한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상존

[BOX 3] 국제유가 상승이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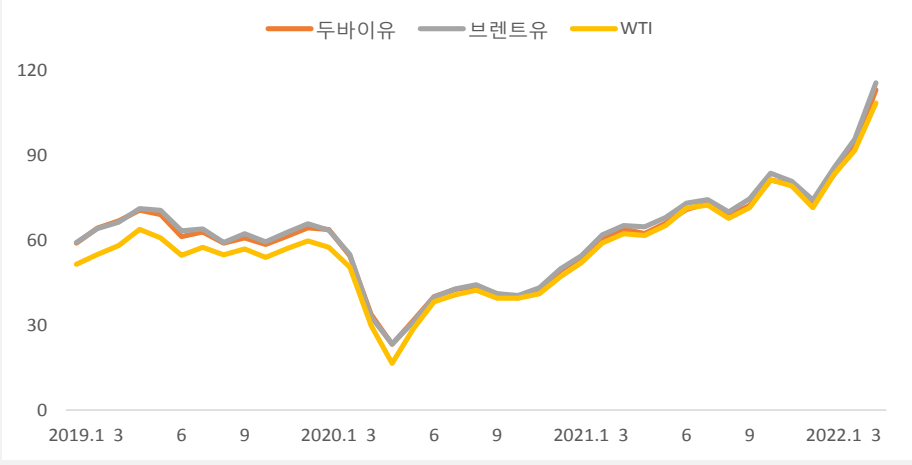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세계수요 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며 급등

○ 2021년 하반기부터 국가별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소비 회복, 자동차를 이용한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

– 2022년 2월 발생한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 반면 원유 공급은 예상보다 적은 OPEC의 증산규모(하루 43만 배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 국제유가 상승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 우리나라의 2020년 일평균 석유 소비량은 256만 배럴로 미국(1,718만 배럴), 중국(1,423만 배럴) 등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

○ 이와 같은 높은 석유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 품목의 수입 원가를 높여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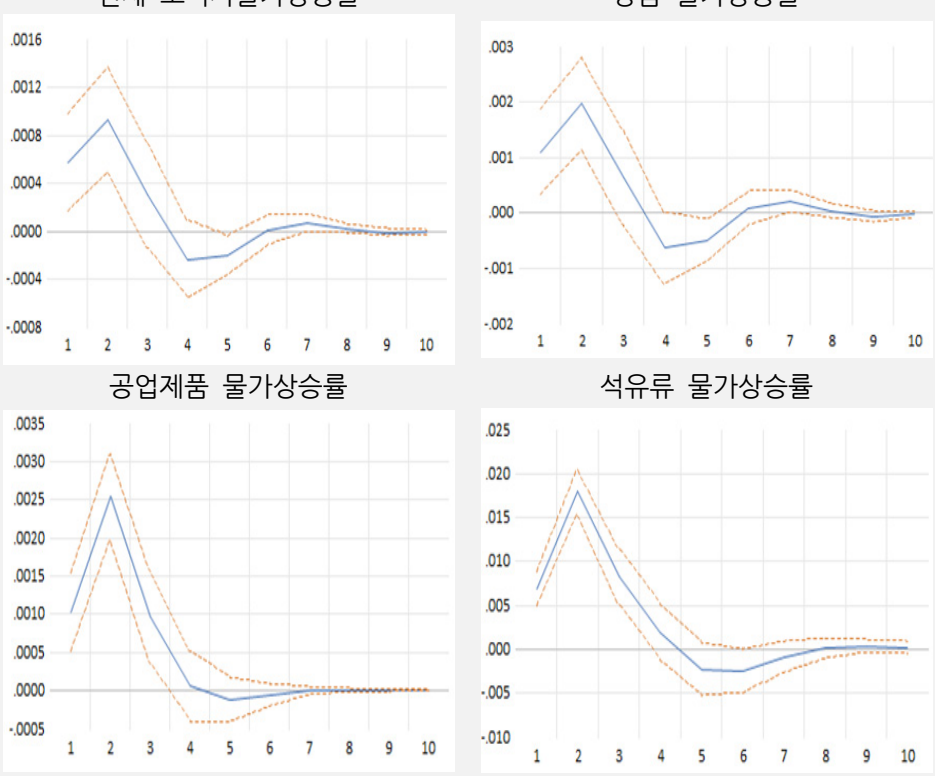
❑ 국제유가 10%p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0.05%p~0.09%p 상승시키는 효과

○ 전체 소비자물가 및 품목별(상품,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충격 발생 이후 2~3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석유류 품목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충격 발생시 석유류 물가가 최대 1.8%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1년.12월)24.6→('21년.1월)16.4 →(2월)19.4

국제유가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주: 1)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로그차분값을 사용하였으며 2000.1월~2021.12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
2) 점선은 95% 수준 신뢰구간을 나타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국내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2022년 하반기로 갈수록 원유 수급 안정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9. 금리

● 2022년 금리는 전년(1.4)보다 1.6%p 높은 3.0% 수준으로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1.4	3.0	▪ 국내외 통화긴축 ▪ 소비자물가 상승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미 정책금리 불확실성 해소

❑ 2021년 국고채금리는 경기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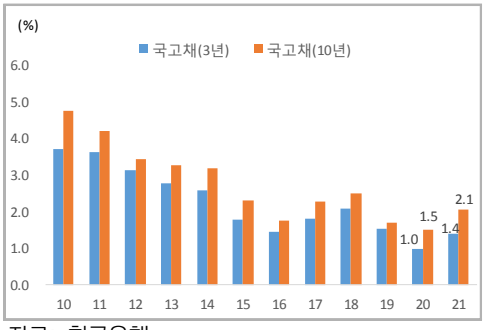
○ 2021년 국고채금리는 3년 만기채의 경우 전년 1.0%에서 1.4%, 10년 만기채는 1.5%에서 2.1%로 상승

–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성장률 4.0%,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기록하며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2020년 경기침체로부터 국내경제가 빠르게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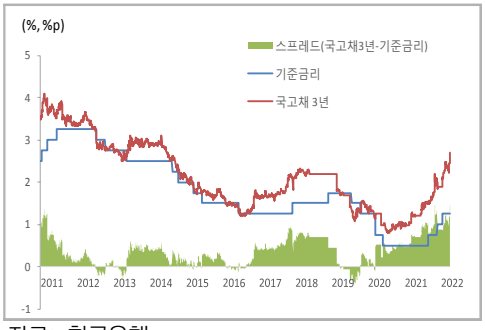
–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 외국인 채권 순매수세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상승세 지속

| 그림 83 | 연간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84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3.0%로 상승할 전망

– 3년만기 국고채 금리(%): ('20년)1.0→('21년)1.4→('22년 전망)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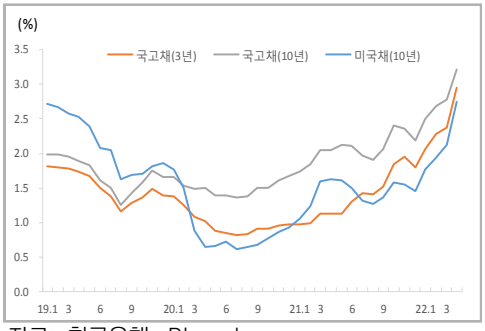
❑ (상방요인) 통화긴축과 소비자물가 상승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통화정책 변화가 금리의 주요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2022년 중 1월과 4월 두차례 금리를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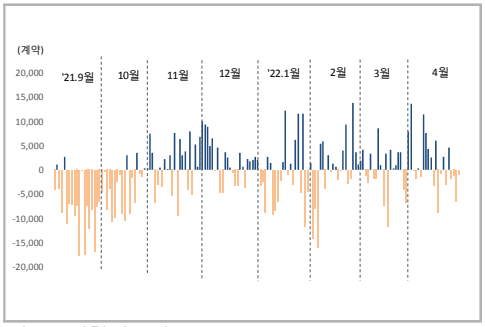
–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금융 불균형 위험,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 그림 85 | 국고채 및 미국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그림 86 | 국고채선물 순매수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하면서 미 FRB의 정책금리 인상이 본격화

– 점도표(2022.3월)에 따르면 정책금리는 2022년 말까지 1.9%로 상승한 후 2023년 말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하여 2021년(2.5%)에 비해 4.0%p 높아질 전망

○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가 둔화되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 (하방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미 정책금리 불확실성 해소

-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하락
- ○ 미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정책 집행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진정될 가능성

10. 환율

● **2022년 환율**은 전년(1,145)보다 65원 높은 **1,210원** 수준 전망

증가율		주요 변동 요인	
2021	2022[f]	상방 요인	하방 요인
1,145	1,210	▪ 미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 안전자산 선호 강화	▪ 원활한 달러 공급 ▪ 달러강세 기조 점차 약화

❑ 2021년 원/달러환율은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년보다 하락

○ 2021년 원/달러환율은 전년(1,180원)보다 낮은 1,145원 기록

– 원/달러환율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회복,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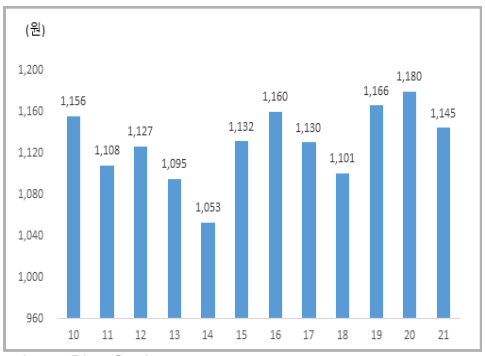
– 경상수지(십억달러): ('21.1/4)23.3→(2/4)19.4→(3/4)25.7→(4/4)20.9

○ 원/달러환율은 연평균으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연중으로는 상승흐름을 나타냄

– 달러화 강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기조 등으로 1월 1,099원에서 12월 1,184원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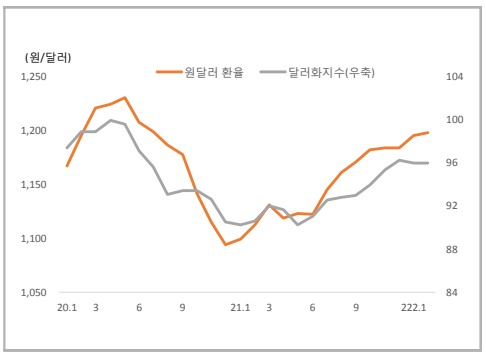
– 외국인 코스피순매수(십억원) : ('20.하반기)165→ ('21. 상반기)-17,245→ ('22.하반기)-8,160[20]

| 그림 87 | 연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그림 88 | 월간 원/달러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20) 자료: 연합인포맥스

❑ 2022년 중 원/달러환율은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

○ 원/달러환율은 2021년 연평균 1,145원에서 2022년 1,210원으로 상승 예상

– 원달러환율(원/달러): ('20년)1,180→('21년)1,145→('22년 전망)1,210

❑ (상방요인)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등으로 달러강세 지속

○ 지난해 말부터 미 연준의 긴축강화 기조에 따른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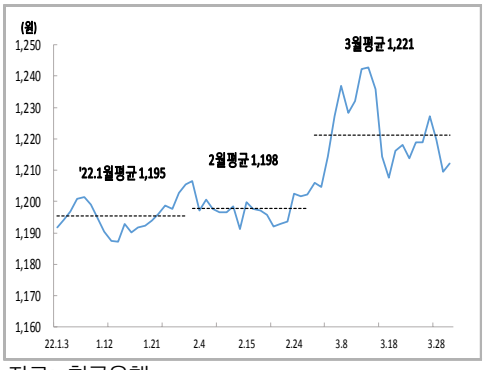
–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및 긴축전환에 대한 예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

–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는 원화의 변동성 확대 및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임

○ 2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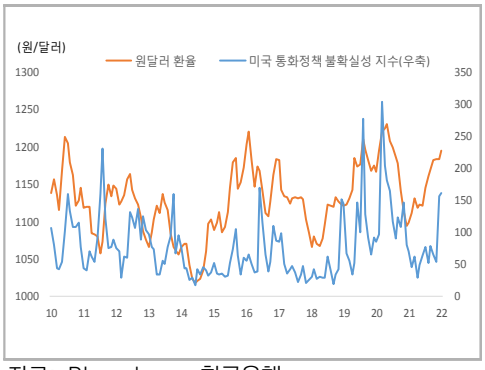
– 2월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환율은 급상승

| 그림 89 | 원/달려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90 | 원/달러환율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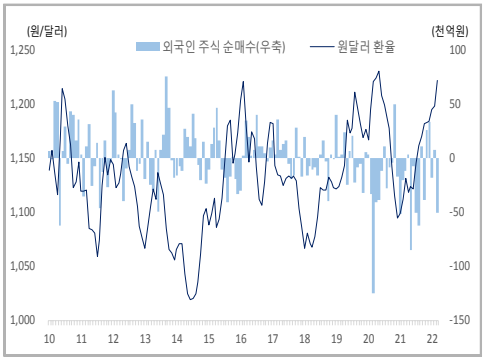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 (하방요인) 원활한 달러 공급과 달러강세 기조 점차 약화

○ 무역수지 개선 가능성,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 역대 최고 수준의 외화예금 규모 등은 외환시장내 원활한 달러 공급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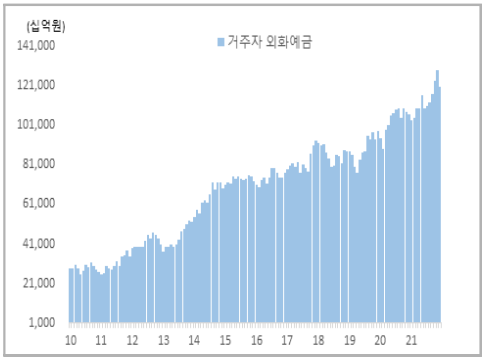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 수출증가세 둔화 및 수입확대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 발생
- 점차 공급망 차질과 중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
- 한국경제 성장세의 안정성과 높은 국가신용등급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지속되면서 달러 공급이 지속될 가능성
- 2022년 2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조 2,655억원

| 그림 91 | 외국인 주식순매수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92 |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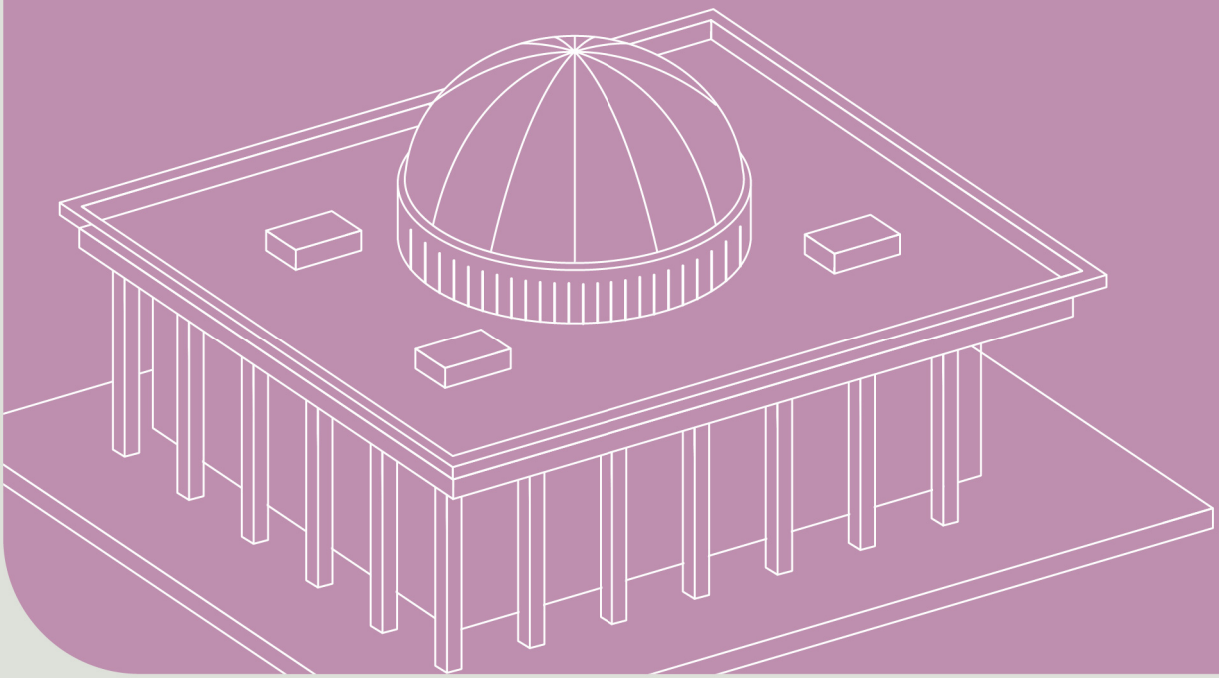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 하반기로 갈수록 ECB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 등으로 달러강세가 제한될 전망

- 미 연준이 긴축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ECB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대비 유로화는 약세 기조를 나타내는 모습
- 하반기 유로지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나타내면서 달러화의 추가적인 강세 압력을 제한할 전망
- ECB는 당초 2022년 중 자산매입프로그램(APP) 매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조기종료를 시사하며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국회예산정책처



3

주요국 동향 및 전망

1. 미국
2. 중국
3. 유로지역
4. 일본

Ⅲ. 주요국 동향 및 전망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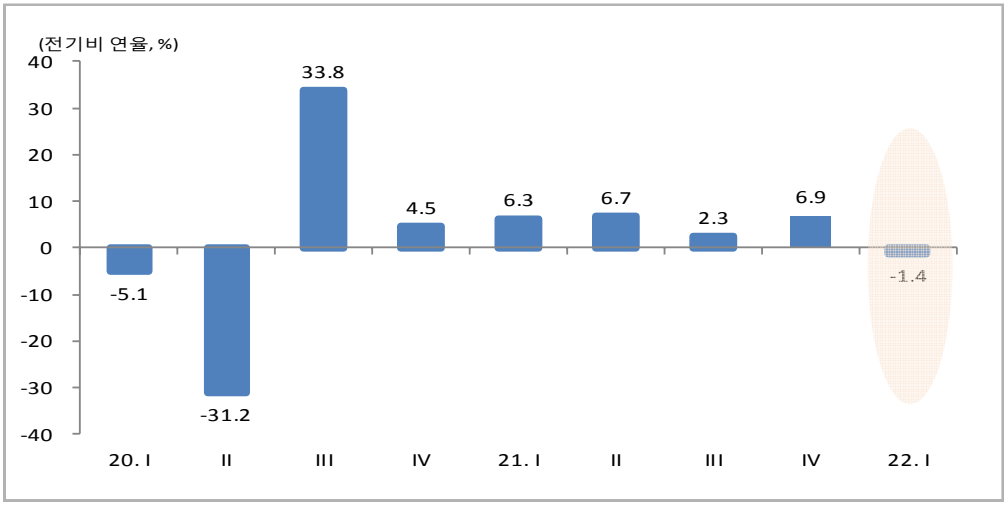
가. 최근 경제동향

❑ 최근 미국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제약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 2022년 1/4분기 미국의 실질GDP(속보치, 연율)는 2020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하며 -1.4% 기록

- 개인소비(2.7%)는 서비스소비(3.3%→4.3%)에 견실한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2.5%)에 비해 증가폭 확대
- 민간투자(2.3%)는 재고투자 부진으로 증가세가 전분기(36.7%)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순수출은 수입(17.7%)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5.9%)이 감소 전환되며 성장기여도(-3.2%p)가 큰 폭으로 하락

| 그림 93 | 미국의 분기별 실질GDP성장률 추이



자료: BEA

○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늘며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공급망 차질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소비관련 지표는 금년 들어서도 견실한 증가세 유지

○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하락

○ 물가는 PCE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

| 표 8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실질GDP 성장률 1)		2.3	-3.4	5.7	6.3	6.7	2.3	6.9	-1.4	-	
지출항목별 성장률	개인소비	2.2	-3.8	7.9	11.4	12.0	2.0	2.5	2.7	-	-
	민간투자	3.4	-5.5	9.5	-2.3	-3.9	12.4	36.7	2.3	-	-
	(비주택투자)	4.3	-5.3	7.3	12.9	9.2	1.7	2.9	9.2	-	-
	(주택투자)	-0.9	6.8	9.0	13.3	-11.7	-7.7	2.2	2.1	-	-
	수출	-0.1	-13.6	4.6	-2.9	7.6	-5.3	22.4	-5.9	-	-
	수입	1.2	-8.9	14.0	9.3	7.1	4.7	17.9	17.7	-	-
	정부지출	2.2	2.5	0.5	4.2	-2.0	0.9	-2.6	-2.7	-	-
전산업생산[2]		0.8	-7.2	5.6	1.0	1.6	0.8	1.1	1.4	0.5	-
실업률		3.7	8.1	5.4	6.2	5.9	5.1	4.2	3.8	3.6	3.6
비농업부문취업자수 3)		2,096	-8,719	3,938	1,262	1,453	1,695	1,733	504	428	428
소비자물가[4]		1.8	1.2	4.7	1.9	4.8	5.3	6.7	7.5	8.5	8.3

주: 1) 전기대비 연율(%) 2) 전기대비(%)
3) 전기대비 증감(천명) 4)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폭 확대 가능성 부각,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2.2월)1.93→(3월)2.13→(4월)2.75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2월)1.44→(3월)1.91→(4월)2.54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2.2월)0.49→(3월)0.22→(4월)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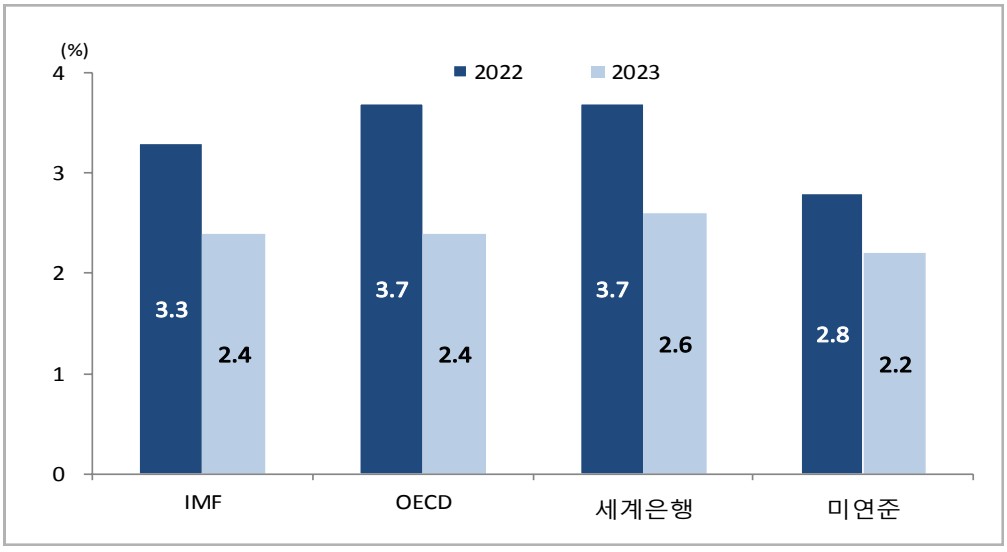
나. 미국 경제전망

❑ 주요 기관들은 2022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8~3.7% 수준으로 전망

○ 미국의 실질GDP는 2021년 5.7%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경제활동 재개 지속과 서비스소비 회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할 전망

- IMF, OECD, 세계은행, 미연준 등은 2022년 미국의 실질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2.1%, CBO 추정기준)을 상회하는 2.8~3.7% 수준을 전망
- 다만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금리상승, 공급망 제약 장기화 등은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 요인이 될 전망

| 그림 94 | 주요 전망기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전망 시점은 각각 IMF '22. 4월, OECD '21. 12월, 세계은행 '22. 1월, 미연준 '22. 3월임
자료: 해당기관 공식 홈페이지

○ 물가는 수요회복과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연준의 장기목표(2.0%)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

- 미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팬데믹과 높은 에너지 가격, 수급 불균형 등으로 물가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또한 수정경제전망에서 PCE물가상승률이 2022년 4.3%까지 상승한 이후 장기균형 수준(2.0%)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

[BOX 4] 미연준의 3월 수정경제전망

❑ 미 연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상향조정

- ○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2.8%에서 2023년 2.2%로 하락하고, 이후 2024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실업률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3.5%로 하락한 이후 2024년부터 장기 수준(4.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 PCE물가상승률은 2022년 4.3%까지 상승한 이후 장기균형 수준(2.0%)을 상당기간 상회하여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7%,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근원 PCE물가상승률은 2022년 4.1%로 상승하고 2022년 이후 상당기간 장기균형 수준 2.0%를 상회

미연준의 3월 수정 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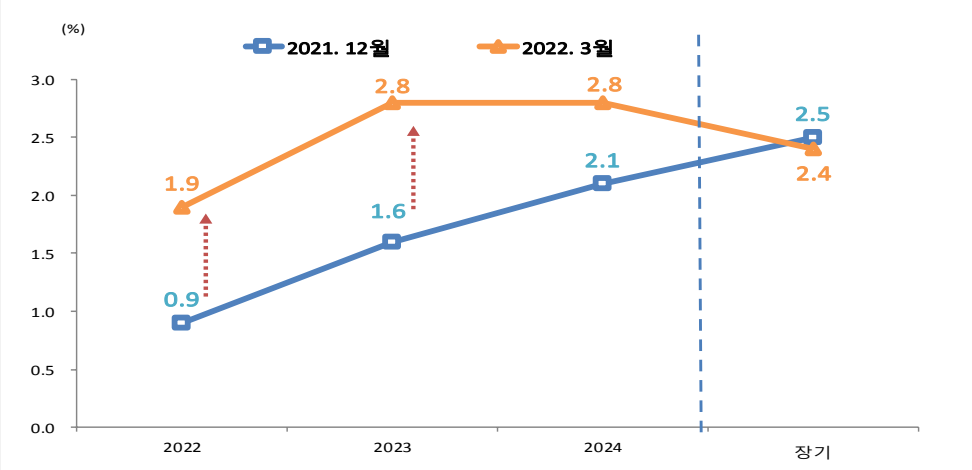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장기
실질GDP성장률	2.8	2.2	2.0	1.8
('21년 12월전망)	4.0	2.2	2.0	1.8
실업률	3.5	3.5	3.6	4.0
('21년 12월전망)	3.5	3.5	3.5	4.0
PCE물가상승률	4.3	2.7	2.3	2.0
('21년 12월전망)	2.6	2.3	2.1	2.0
근원 PCE물가상승률	4.1	2.6	2.3	
('21년 12월전망)	2.7	2.3	2.1	

주: 1) 회의참석자 예측치의 중간값(median) 기준임
2)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냄

❑ 정책금리는 2022년 말까지 1.9%로 상승한 후 2023년 말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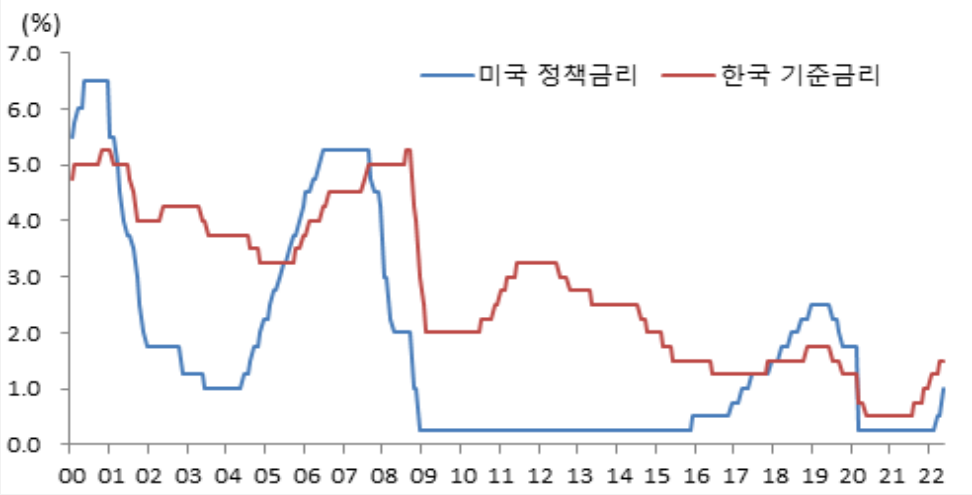
- ○ 금년 말 정책금리는 참여위원 다수가 1.75~2.00%(0.25% 인상기준 7회)를 제시
  - – 지난 12월 전망(0.75~1.0%, 0.25% 인상기준 3회)보다 1.0%p 상향 전망
  - – 2023년말 정책금리는 2.5~3.0%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장기 균형금리는 지난 전망(2.5%)보다 소폭 하향하여 2.4%로 예상

미연준의 정책금리 전망



주: 회의참석자의 연말 정책금리 예측치의 중간값 기준임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미FRB

2. 중국

가. 최근 경제동향

❑ 2021년 중국경제는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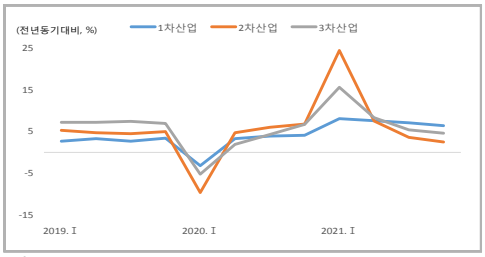
○ 2021년 중국의 실질GDP는 전년도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8.1% 성장

– 산업별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업황이 개선

–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소비와 순수출의 기여도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년대비 하락

○ 하반기 이후 실물지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

| 그림 95 | 중국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 그림 96 | 중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CEIC

| 표 9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실질GDP성장률	2.2	8.1	18.3	7.9	4.9	4.0	-
산업생산	2.8	9.6	4.4	8.8	4.9	3.8	7.5
소매판매	-3.9	10.7	34.2	13.9	5.0	3.5	4.9
고정자산투자	2.9	4.9	25.6	12.6	7.3	4.9	12.2
수출	2.0	30.0	48.8	30.7	24.3	23.1	22.0
수입	-1.0	30.2	29.4	44.1	25.9	23.9	31.7
실업률	5.6	5.1	5.3	5.0	4.9	5.1	5.3
소비자물가	2.5	0.9	0.0	1.1	0.8	1.8	0.9

주: 1) 2022년 산업생산, 소매판매 자료는 2022년 1-2월 누적값
2) 고정자산투자는 해당기간까지의 누적값, 3) 실업률은 도시지역 서베이 자료
자료: Bloomberg, CEIC,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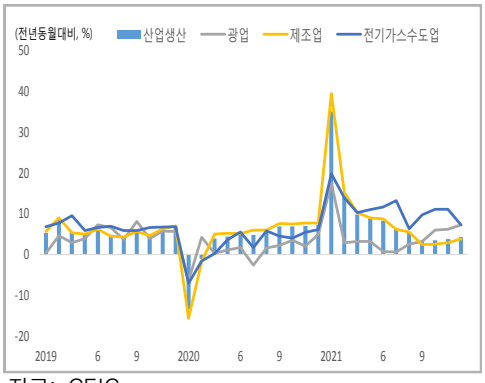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전년도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2021년 2/4분기까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성장세가 둔화

○ 산업생산은 전력난으로 인해 2021년 3/4분기부터 광업·제조업 부문에서 크게 위축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석탄 증산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추진된 고강도 방역정책(제로코로나)으로 2021년 11월 이후 외식업 부문 소매판매가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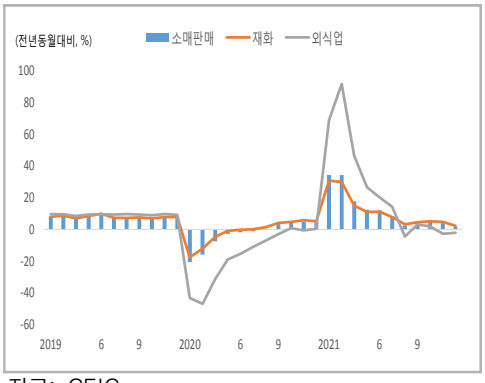
○ 고정자산투자는 누적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

| 그림 97 | 중국 산업생산 추이



자료: CEIC

| 그림 98 | 중국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 수출은 대외 수요 확대로 전년대비 30.0% 증가하고 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30.2% 증가

- 2021년 중국의 연간 무역수지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최대 규모인 6,762억 달러를 기록

○ 도시지역 실업률은 2021년 2월(5.5%)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5.1%를 기록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 전환하여 연간 0.9% 상승

- 생산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력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 10월에는 13.5%로 최고치를 기록

나. 중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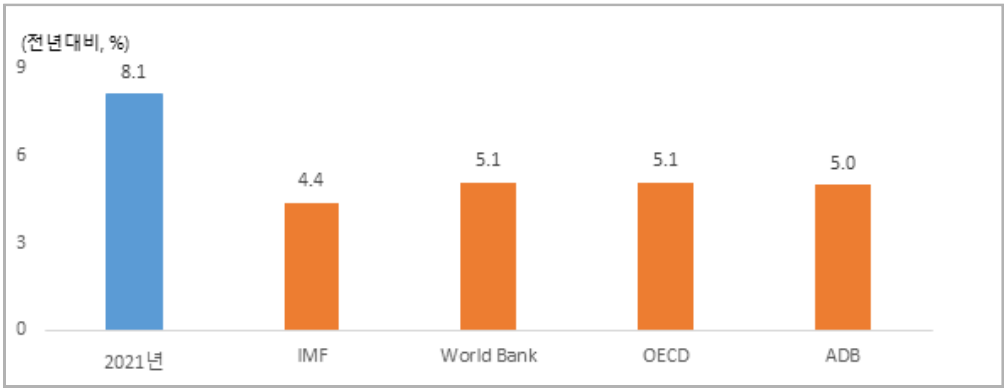
❑ 2022년 중국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 2022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재정적자율은 작년(3.2%)보다 축소된 2.8%로 제시
- ○ 중국 경제의 하방요인으로는 기업규제조치로 인한 내부 성장동력 약화, 대외 갈등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 IT플랫폼·부동산·교육 등에 대한 기업규제와 미·중 갈등,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

❑ 주요 기관들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4~5.1% 수준으로 전망

- ○ IMF(2022.4월)는 중국 부동산투자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2022.1월 전망보다 0.4%p 하향 조정한 4.4%로 전망
- ○ World Bank(2022.1월)는 경제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치로 인해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1%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OECD(2021.12월)는 부동산투자 위축, 정전사태에 따른 제조업 투자전망 악화 등으로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
- ○ ADB(2022.4월)는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1.12월 전망치보다 0.3%p 하향 조정한 5.0% 전망

| 그림 99 |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2021년은 실적치
자료: IMF(2022.4월), World Bank(2022.1월), OECD(2021.12월), ADB(2022.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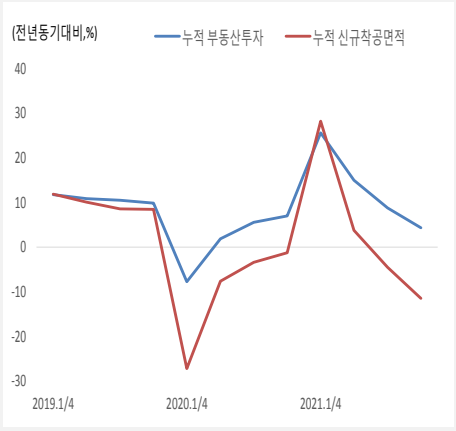
[BOX 5] 2022년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는 양상

- ○ 2021년 4/4분기 중국의 부동산투자액은 3.5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하였으며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년동월대비 13.9% 감소
- ○ 2021년 4/4분기 중국의 신규착공면적은 4.6억㎡로 전년동기대비 28.6% 감소
- ○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주택가격 증가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
- ○ 중국의 누적 주택판매액은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점차 둔화

중국 부동산시장 주요 지표 추이

부동산투자 및 신규착공면적 추이



신규주택가격 및 주택판매액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 중국 부동산시장은 공동부유론에 기인하는 부동산 규제로 성장세가 둔화

- ○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부동산기업 대출 규제, 부동산세 개혁 등과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
  - – 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세 개의 레드라인' 규제를 통해 부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규차입을 제한
  - – 202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주택 보유세(부동산세) 도입을 본격화

❑ **2022년 중국 부동산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 2021년 말부터 청도시(成都), 푸저우시(福州), 허쩌시(菏泽) 등에서는 주택 판매 승인, 부동산 대출 한도 확대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조치를 완화
- ○ 2022년 1월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되는 5년 만기 LPR을 0.05%p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
- ○ 중국 전체 GDP에서 약 25%의 비중(명목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회복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건설, 부동산, 임대업, 금융중개 등

3. 유로지역

가. 최근 경제동향

❑ 유로지역 경제는 2021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약화

○ 2021년 유로지역의 GDP성장률은 5.2%를 기록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2020년 -6.4%)에서 플러스로 반등

-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상승 및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점차 회복
- 2/4분기와 3/4분기 중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2.2%, 2.3%를 나타내며 반등하는 모습
- 그러나, 4/4분기 들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에너지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며 전기대비 0.3%로 둔화

○ 2022년 1/4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오미크론 여파 등으로 전기대비 0.2% 증가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지속

| 표 10 |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GDP성장률[1]	-6.4	5.2	-0.9 (-0.1)	14.6 (2.2)	4.1 (2.2)	4.6 (0.3)	5.0 (0.2)	-	-	-
산업생산	-7.9	8.8	4.8	24.2	6.0	0.1	-	-1.5	2.0	-
소매판매	-0.8	5.5	2.6	12.7	2.5	4.1	-	8.4	5.0	-
수출	-9.1	14.1	0.7	34.4	13.6	12.0	-	19.7	17.0	-
경상수지[2] (10억유로)	212.9	309.9	95.6	79.4	68.7	66.2	-	21.6	20.8	-
실업률	7.9	7.7	8.2	8.0	7.5	7.1	6.9	6.9	6.8	6.8
소비자물가[3]	0.3	2.6	1.0	1.8	2.9	4.7	6.1	5.1	5.9	7.5
달러/유로 환율	1.142	1.183	1.205	1.205	1.179	1.143	1.122	1.132	1.134	1.102

주: 1) ( )안은 전기대비, 2) 경상수지 분기수치는 계절조정자료, 3)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자료: Bloomberg, ECB,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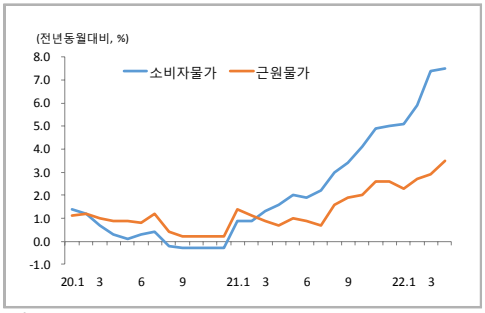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백신접종률 상승과 원활한 백신수급 등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회복세

– 경제 주체들의 외부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며 섬유·의복·신발 등 준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

○ 소비자물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2022년 4월 7.5%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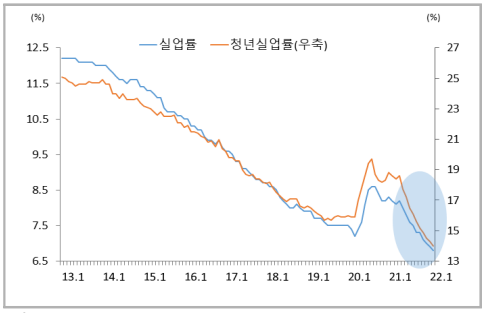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가격이 4월 38.0%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4.6%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00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ECB, Bloomberg

| 그림 101 |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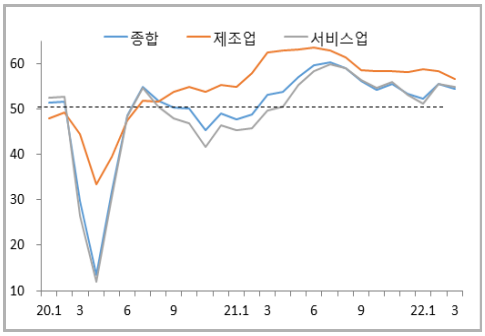
자료: ECB, Bloomberg

○ 실업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 들어 개선세를 지속하며 2022년 3월 6.8%까지 하락

–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22년 3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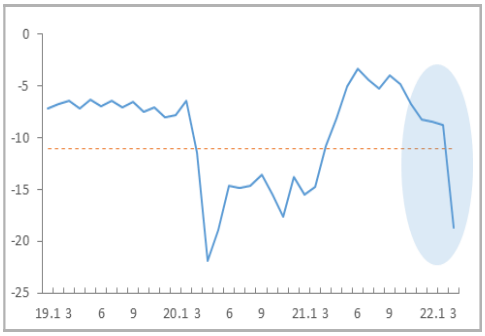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종합 PMI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되는 모습

| 그림 102 |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 그림 103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EU 집행위

○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주요국에서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하락세

나. 유로지역 경제전망

❑ 주요 기관들은 2022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을 2.8~3.7% 수준으로 전망

○ IMF(2022.4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악화 등을 반영하여 유로지역 성장률을 2.8%로 전망(종전보다 1.1%p 하향 조정)

- 제조업 비중과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성장률을 각각 1.7%p, 1.5%p 하향 조정

○ OECD(2022.3월)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경제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으로 유로지역 GDP는 OECD의 기준선 전망대비 1.4% 감소할 전망[21)22)]

○ ECB(2022.3월)는 2022년 유로지역 경제가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가운데, 노동시장 회복과 공급 병목현상 완화, 재정지원[23)] 등으로 연간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12월 전망보다 0.5%p 하향조정
-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와 석유가격의 급등은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24)]
- ECB는 3월 경제전망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개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2022년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

2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2주 동안 나타난 시장의 충격이 최소 1년 동안 지속되고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함.
22) OECD 0.99%, 미국 0.88%, 전세계 1.08%의 GDP 감소가 예상
23) 2022년 3월 14일 기준 EU 회복 및 복구자금(Recovery&Resilience Facility) 중 540.4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199.1억 유로의 대출이 집행(총 보조금 3,380억 유로, 3,858억 유로의 대출 사용가능)
24) 러시아의 원자재 생산 중 유럽으로의 석유 수출비중은 53.8%, 가스 수출비중은 42.0%(자료: BP)

4.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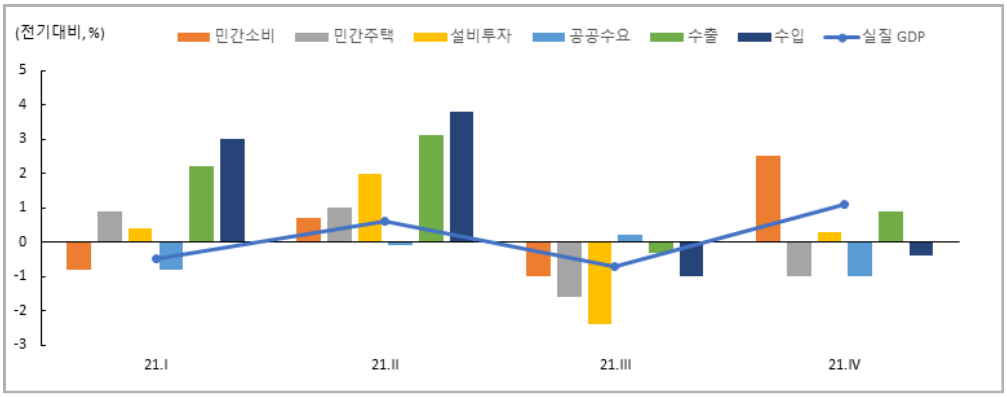
가. 최근 경제동향

❑ 2021년 일본 경제는 민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 일본 GDP 성장률은 투자의 부진에도 민간 소비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1.6% 상승

- 일본 GDP 성장률(전기대비, %): ('21.1/4분기)-0.5→(2/4분기)0.6→(3/4분기)-0.7→(4/4분기)1.1
- 민간소비와 순수출은 성장에 각각 0.7%p와 1.0%p를 기여하였으나 주택투자와 설비투자는 경제성장률을 0.1%p 낮춤

| 그림 104 | 일본의 지출 부문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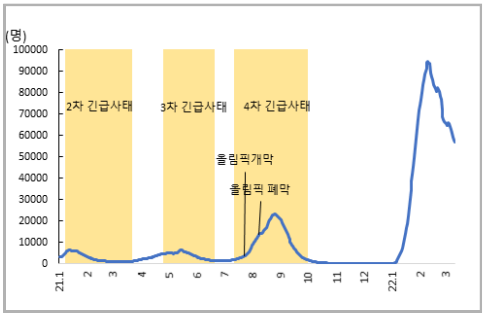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주요 실물지표는 4차 긴급사태가 해제된 2021년 4/4분기 들어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2022년 들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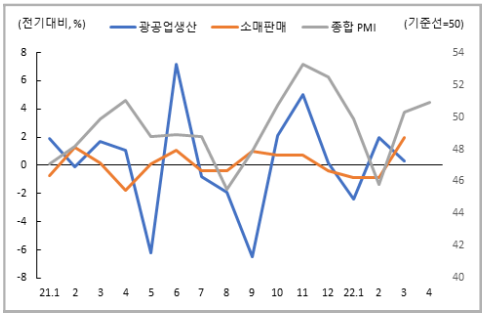
- 2022년 3월 소매판매가 증가로 전환되고 광공업생산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급제약에 대한 우려로 4월 제조업 PMI가 하락

| 그림 105 | 일본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 그림 106 | 일본 주요 실물 지표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Bloomberg

| 표 11 |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 GDP성장률[1)]	-4.5	1.6	-0.5	0.6	-0.7	1.1	-
광공업생산	-10.4	5.6	-1.2	19.8	5.4	0.9	-0.6
소매판매	-3.2	1.9	0.5	6.5	-0.4	1.3	0.4
수출	-11.1	21.5	6.0	45.0	24.9	15.7	14.5
수입	-13.5	24.6	2.5	23.9	36.9	37.4	34.6
실업률[2)]	2.8	2.8	2.9	2.9	2.8	2.7	2.7
소비자물가	0.0	-0.0	-0.5	-0.7	-0.2	0.5	0.9

주: 1) 전기대비 2) 기간평균
자료: 일본은행, 일본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나. 일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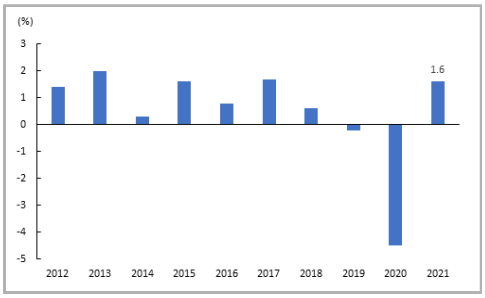
❑ 2022년 일본경제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 GDP의 54%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외식·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
  - – 관광 활성화(Go To Travel 캠페인) 및 소비 진작 정책이 소비를 촉진
  - – 코로나19 이후 소비감소로 누적된 초과 저축(30~40조엔 규모 추산)이 이연소비(보상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 다만, 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중국 봉쇄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엔화가치 하락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주요 기관들은 일본의 2022년 성장률을 2.4~3.4% 수준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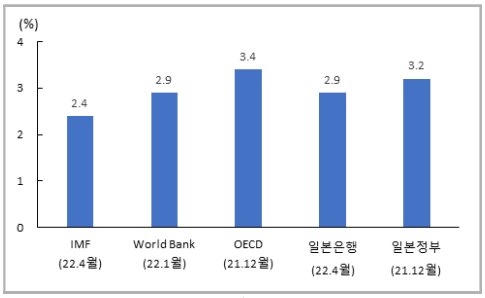
- ○ IMF(2022.4월)는 국제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순수출을 감소시켜 1월 전망 대비 0.9%p 하향 조정한 2.4% 성장을 전망
- ○ World Bank(2022.1월)는 2021년까지 억제되었던 경제활동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 활발해져 2022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OECD(2021.12월)는 소비중심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며 2022년 3.4% 성장을 예상
- ○ 일본은행(2022.4월)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9% 성장 전망
- ○ 일본 정부(2012.12월)는 대규모 경제 대책의 효과와 이연소비 확대를 근거로 일본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그림 107 |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주: 일본 내각부

| 그림 108 | 주요 기관의 일본 경제 전망



주: 일본은행은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BOX 6] 일본의 경기부양책

❑ 2021년 11월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 국가 및 지방의 부담을 포함한 재정지출은 55.7조엔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
- ○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실질 GDP의 5.6 %로 추산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의 4대 축

(단위: 조엔)

2021년 추경예산 편성내역	추경 예산	재정 지출	사업 규모
1. 코로나19 확대 방지	18.6	22.1	35.1
2. '위드 코로나' 사회경제 활동 재개와 위기 대비	1.8	9.2	10.7
3. 미래를 여는 '신자본주의' 가동	8.3	19.8	28.2
4. 방재 등 안전, 안심 확보	2.9	4.6	5.0
합계	31.6	55.7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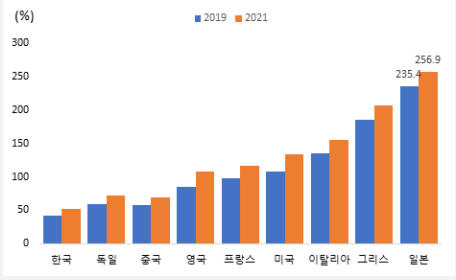
주: 2021년도 추경예산은 총 36조 엔이며 그중 31.6조 엔은 추가 재정지출로 편성되고 4.4조 엔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으로 충당

자료: 일본 재무성(2021), 「令和3年度補正予算案」

❑ 일본은 이미 정부부채가 높은 수준이어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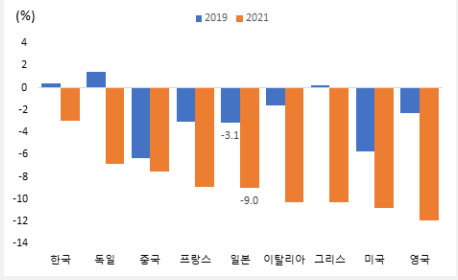
- ○ IMF(2021.10월)는 일본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GDP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대비 21.4%p 확대되어 2021년 256.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일본의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 정부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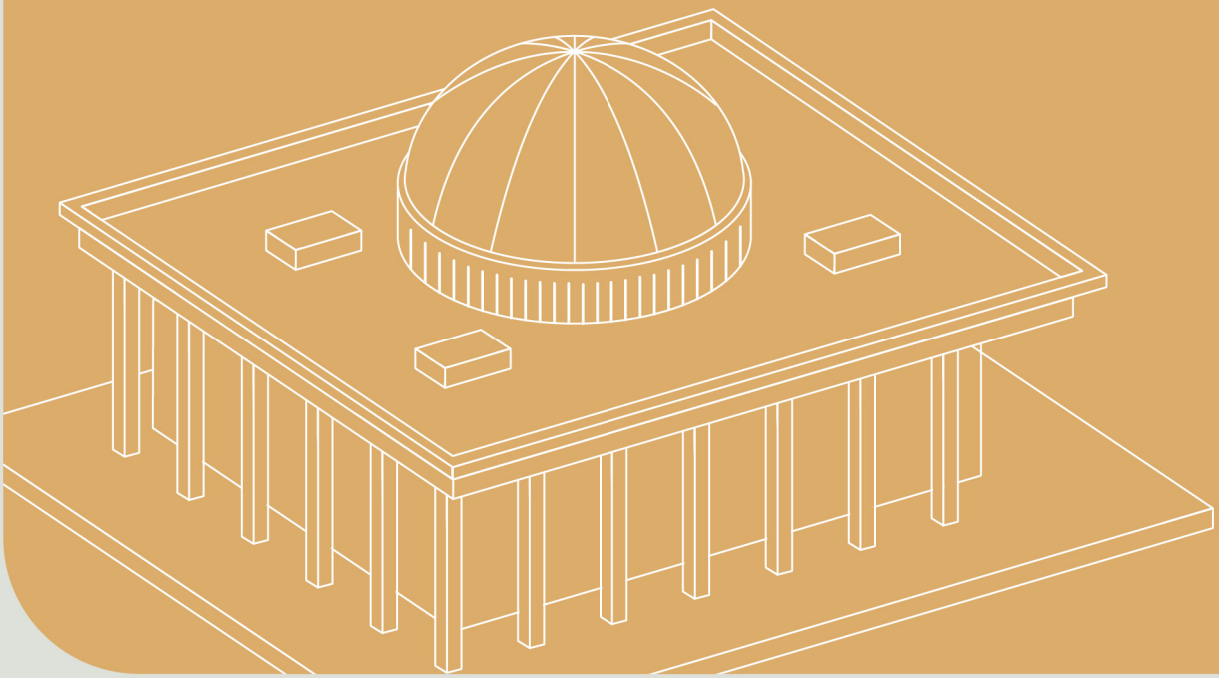
자료: IMF

주요국 재정수지 추이



자료: IMF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1. NABO 경제전망 개요
2. 전망 방법론 개요

[부록: NABO 경제전망]

1. NABO 경제전망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경제전망 목적	· 재정전망, 비용추계, 예산안 분석의 기초 자료 제공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주기	· 매년 2차례 발간 - 상반기와 9월
경제전망 시계	· 상반기 전망은 당해 연도 전망 · 9월 전망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중기 5년 전망 · 2년마다 제공되는 장기거시전망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전망치 제공
경제전망 절차	·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 예비전망치 →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전망치 확정 → 내부의견 수렴 → 최종치 확정
경제전망 방법론	· NABO 거시경제전망 모형 · 주요 지출부문별, 물가, 이자율, 고용 변수의 개별 전망 모형 · 부문별 GDP디플레이터 전망 모형 · 잠재GDP 추정모형 ·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
주요 전망 변수	· 실질GDP, 지출부문별 전망 · 노동시장 변수(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 국채수익률(3년만기), 환율 · 소비자물가, 임금상승률, GDP디플레이터(지출 부문별) · 잠재GDP(중기경제전망)

2. 전망 방법론 개요

가. 지출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는 소비여력과 고용여건 등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

○ 예측 변수로 소득, 이자율, 자산 가격, 노동시장 변수 등을 포함

❑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선행지표로 구성된 모형을 활용하여 전망

○ 예측 변수로 경제성장률, 건설수주, 착공실적, 주택가격 등을 고려

❑ 설비투자는 장단기 변동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오차수정 모형을 활용하여 전망

○ 예측변수는 수요요인(GDP), 산업구조요인(IT산업비중), 비용요인(실질이자율, 실질실효환율), 대외요인인 자본유출·입과 제조업 가동률 등을 포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실질GDP, 지식기반서비스업/GDP 비중, 실질기업매출액 등의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 모형 활용

○ 연간모형에서는 중기적으로 정부의 R&D예산 증가율을 실질화하여 반영

❑ 수출입 등의 대외거래 변수는 대내외 수요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

○ (통관수출) 세계수입수요와 수출가격 등의 통관수출 결정 변수와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전망

- (총수출) 총수출은 단가요인을 배제한 물량 기준으로 통관수출액, 통관기준 물량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전망

○ (통관수입) 국내 수요변수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내수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망

- (총수입) 총수입은 단가요인을 배제한 물량기준으로 통관수입액을 실질화한 변수, 내수, 수출 등의 영향을 고려

나. 고용변수 전망

❑ 경기변동과 실업률 변동의 관계에 기초하여 실업률 전망

- ○ 실질GDP 변동과 실업률 변동의 안정적 관계를 이용하고, 실업률의 지속성 계수를 추가적으로 고려
- ○ (산업별) 경기변동과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에 기초하여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전망
- ○ 15세 이상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제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및 성별 시계열 모형으로 전망

다. 소비자물가 및 금융변수 전망

❑ 소비자물가는 실질GDP와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가격변수를 이용하여 전망

- ○ 설명변수로는 수요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GDP갭률을, 공급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원자재 가격과 대외요인인 원/달러 환율을 사용
- ○ 또한, 물가상승률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물가상승률의 지속성을 고려

❑ 회사채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국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변동, GDP대비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전망

- ○ 국고채금리는 회사채금리에 신용스프레드를 반영하여 전망
- ○ 위험의 대리변수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표준편차를 이용한 변동성 산출)을 신용스프레드로 추정

❑ 원/달러 환율은 물가와 통화량, GDP 변수 등을 이용하여 전망

- ○ 실질GDP성장률, M2 통화량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한미 간 차이를 반영하여 명목환율 전망

라. GDP디플레이터 및 지출부문별 디플레이터 전망

❑ GDP디플레이터는 선형추세, 지속성계수, 실질GDP갭, 환율, 유가 등의 함수로 국내 수요요인 및 대외 공급측 충격 요인을 고려하여 전망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예측
○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건설용원재료 가격, 건설용중간재 가격 등의 함수
○ 설비투자 디플레이터는 환율, 자본재물가지수 등을 고려
○ 수출 디플레이터는 달러표시 수출물가지수의 함수로 수출물가지수는 반도체 가격, 유가, 원/달러 등을 이용하여 전망
○ 수입 디플레이터는 달러표시 수입물가지수의 함수로 수입물가지수는 유가, 원/달러 등을 이용하여 전망

2022 경제전망

발간일 2022년 5월 3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5)

ISBN 979-11-6799-051-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627-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